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2호 【루계 제26016호】 주체107(2018)년 5월 22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석탄증산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고무추동

평안남도안의 탄광련합기업소당조직들에서

평안남도안의 탄광련합기업소당조직들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모두가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깊이 인식하고 결사관철하는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100여명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 관한 보도가 나오자 당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막장소공구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탄광, 갱, 채탄중대, 굴진소대, 채탄소대들에 일제히 내려갔다.

2.8직동청년탄광 9갱 굴진3소대 막장과 천성청년탄광 8갱, 령대탄광 막장에 나간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은 탄부들과 어울려 일도 함께하고 쉴참에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을 알려주면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선구자가 되자고 고무해주었다.

당위원회에서는 또한 련합기업소의 지상단위들에서 탄광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어 대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고있다. 은산탄광설비부속품공장, 순천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은 담당한 탄광들에 매주 2차이상 나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어깨를 들이대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여 대중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지난 5월초 선동원의 날에 출연한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령대탄광의 초급당위원장들은 선동원들에게 대중을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나팔수, 송풍기가 되자고 호소하였다.

선전일군들이 방송선전차들을 타고 매일 구내를 돌면서 긍정적소행을 소개하기 위한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탄광구내와 갱막장들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와 관련한 구호와 표어, 속보판들이 게시되여 전투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일군들의 정치사업에 고무된 령대탄광의 로동자들은 매일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도 대중을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중심고리를 옳게 포착하고 거기에 선전선동력량을 총집중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세워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고있다.

송남탄광기계공장, 원평세멘트공장, 북창탄부오리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나간 당위원회 부부장이상 일군들은 그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데서 단위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그들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이 남덕청년탄광의 갱, 굴진중대, 채탄중대, 굴진소대, 채탄소대를 담당하고 집중적으로 도와주어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있는 가운데 종전보다 매일 수십t의 석탄이 더 생산되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도를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더욱 실속있게 조직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탄광, 갱, 중대, 소대들사이의 단기사회주의증산경쟁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적역할을 다하고있다.

조건이 제일 어려운 막장들에 나가 탄부들에게 지원물자를 넘겨주고 동발나무도 나르고 탄차도 밀면서 당위원회일군들이 벌려나가는 화선식정치사업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탄광단위로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출동모임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당일군들과 방송선전차 방송원, 선동원, 학습강사, 직외강연강사, 직관원, 탄광기동예술선동대, 녀맹예술선동대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갱막장과 현장에서 선동사업을 힘있게 벌리도록 추동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안의 탄광련합기업소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박력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석탄증산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에 더 많은 설비와 자재를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삼지연군꾸리기에 필요한 설비생산을 맡은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을 전국의 모범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표준모범단위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서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각지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필요한 설비들을 생산하여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에 계속 보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삼지연군꾸리기에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에서는 년초부터 맡겨진 설비들에 대한 생산전투를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평양326전선공장과 경성애자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날을 따라 놀라운 건설성과가 이룩되고있는 삼지연군꾸리기건설장에 마음을 잇고 생산공정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였다.

평양326전선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각종 전선류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경성애자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단로기, 애자들을 제기일보다 앞당겨 생산보장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대동강전기공장, 평양자동화기구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여러 종류의 변압기, 배전반생산실적을 올리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려 맡겨진 생산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고있다.

안주뽐프공장, 성천강전기공장, 평양베아링공장의 로동계급은 배달 맡겨진 뽐프와 전동기, 베아링생산과제를 빛나게 결속한 기세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문천발브공장의 로동자들도 집중적인 생산방법으로 불리한 생산조건을 타파하며 각종 발브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보장하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삼지연군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실현에 필요한 대상설비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1.4분기에 이어 4월에도 뜨락또르굴착기, 감속기를 생산하여 삼지연군으로 떠나보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설비생산을 위한 돌격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농업성아래 여러 단위들에서도 각종 농기계와 부속품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각지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삼지연군꾸리기에 필요한 설비생산성과는 날이 감에 따라 확대되고있다.

홍성준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개발경쟁 활발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생산단위들에서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광산, 공장들에서 특색산업의 중요한 원료인 경소마그네샤를 리용하여 가공제품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규석과 희토류광물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자원과 우리의 기술로 세계적인 패권을 쥘수 있는 경제분야를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단천지구광업총국에서는 경소마그네샤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내화물공업의 자립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무진장한 마그네사이트자원을 타고앉은 단천지구에서부터 마땅히 마그네샤가공공업발전의 활로를 열어제껴야 한다는 높은 책임감을 새겨안은 총국일군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하고있다.

총국에서는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개발에 달라붙은 모든 생산단위들이 발전전략을 바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마그네샤가공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성과들을 내놓도록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개발과 생산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단천마그네샤공장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필요한 시약과 첨가제들을 새로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질제고를 위한 기술적진보를 이룩하였다.

경소마그네샤를 가공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만들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온 대흥청년영웅광산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경소합판의 질을 한계단 높이고 생산을 내밀고있다. 이들은 합판, 벽판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한데 만족하지 않고 여러가지 건구개발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단천마그네샤공장에서도 가공제품개발속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공장일군들은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개발을 몇몇 기술자들에게만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총발동하고 3대혁명소조원들을 적극 인입시켜 협동연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결과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개발에 대한 생산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특색있는 제품들이 련속 개발되고있다.

특히 8월23일직장에서는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벨트콘베아굴개를 만들어 생산에 리용하고있다. 근 1년간의 사용과정을 통해 그 성능이 확증된 결과 짐을 적게 받는 콘베아운반공정들에서 얼마든지 강철재료에 의한 굴개를 대신할수 있는것으로 인정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경소마그네샤로 여러가지 용도의 가공제품을 개발하려는 생산자대중의 열의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공장의 여러 직장들에서 출입문을 비롯한 건구들을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들로 갖추어놓고 사용하고있으며 제품의 미적가치를 높이기 위한 직장별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을 더 많이 개발생산할수 있는 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새로운 공정을 일떠세우는 사업도 박력있게 추진되고있다.

룡양광산, 백바위경소마그네샤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도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개발에 적극 뛰여들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단천제련소에서는 자체로 경소마그네샤스페트를 만들어 새로 일떠세우는 생산건물의 지붕공사를 완성하였다.

모든 생산단위들에서 경소마그네샤가공제품에 대한 개발경쟁이 활기있게 진척될수록 총국에서는 가치있는 연구성과에 대한 과학기술심의를 제때에 하여 실천에 도입되도록 하고있으며 제품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고 서로의 경험교환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우리 조국의 무진장한 마그네사이트재부를 더욱 빛내이려는 애국열의를 안고 2차, 3차가공제품개발에 떨쳐나선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모든 단위 일군들과 생산자들의 투쟁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리철옥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 본격적으로 추진

전국각지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는 속에 도로건설 및 기술개건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회양군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철령도로의 기술개건을 선차적인것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사연깊은 철령도로를 보다 훌륭히 개건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군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분발해나선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대와 함마로 산기슭을 깎아내고 옹벽을 쌓으면서 일자리를 푹푹 내였다.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간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도로폭확장과 옹벽보수, 물도랑정리 등 수십리구간의 도로에 대한 개건보수공사는 짧은 기간에 끝날수 있었다.

원산시, 천내군, 평강군에서도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와 인민들의 교통상편의를 도모할수 있게 하였다.

의주군에서는 도로기술개선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관리총동원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린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들의 폭을 넓히고 구배낮추기, 곡선펴기 등을 하면서 평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공사량은 방대하고 부족한것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면서 필요한 자재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였다. 이와 함께 한m한m의 도로를 보수해도 견고성과 문화성이 보장되도록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도로들의 기술상태를 개선하였다.

김책시, 만포시, 룡천군, 성간군, 은률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도로의 안전성과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뜻깊은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세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인 도로의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상반년도계획완수단위가 늘어난다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아래 각지 공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공장들에서 힘찬 증산투쟁을 벌린 결과 상반년도계획을 기한전에 앞당겨 완수한 단위들이 늘어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약공업부문과 의료기구공업부문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구의 가지수를 늘이며 그 질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나가는데서 의료기구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년초부터 공장들에 전투지를 정하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계속전진, 계속혁신의 불길속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기 위한 각지 로동계급의 생산성과가 더욱 확대되고있다.

보건산소공장, 평양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청진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증산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현장에서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면서 월생산계획들을 넘쳐 수행한 기세높이 올해생산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참신하게 짜고들고있다.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동원하여 청진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의 로동계급은 상반년도생산계획을 10일현재 119.8%로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들에서도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안팎을 일신시키는 사업과 생산전투를 동시에 내밀어야 하는 어려운 속에서도 성능높은 의료기구생산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비록 부족한것이 많은 속에서도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 로동계급은 혁명의 전세대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창조본때를 본받아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나가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속에 많은 공장들이 상반년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였으며 기세드높이 의료기구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를 더 높은 의료기구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아래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열의에 의해 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과일가공기지건설성과 계속 확대

618건설돌격대에서

고산과수종합농장에 과일가공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줄기찬 공격전에 의해 건축공사가 70% 계선을 돌파하였다. 하부구조건설이 이미 끝난데 이어 보조생산건물의 벽체미장 및 시설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구획정리공사도 마감단계에 이른 가운데 돌격대에서는 기본생산건물의 층막치기와 벽체미장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의 불길높이 과일가공기지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립체전을 벌려 건축공사와 구획정리를 다같이 내밀기 위한 대담한 목표밑에 공사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가고있다.

각 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면서 과일가공기지건설을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안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자력자강의 기치를 들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대중의 열의를 앙양시키는것과 함께 전투조직을 실정에 맞게 면밀히 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려단에서는 당의 뜻대로 시공을 전문화하여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면서 기능공대렬을 늘이고 로력과 자재,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새 공법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대대들에 필요한 자재를 려단이 전적으로 맡아 보장하면서 여러동의 보조생산건물의 벽체미장을 끝냈다. 그 기세로 기본생산건물의 층막치기와 벽체미장작업을 다그치고있다.

평양시려단의 전투장에 비약의 열풍이 세차게 몰아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는데 618건설돌격대의 영예가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일정계획을 앞당기기 위한 혁신적인 작업방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였다.

그리하여 여러동의 보조생산건물의 골조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다그쳐 끝냈다. 이들은 자기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벽체미장을 다그치면서 구획정리공사도 힘있게 내밀었다. 려단에서는 삽차를 비롯한 중기계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수천㎥의 구획을 정리하기 위한 완강한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해제끼였다.

함경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굴함없는 공격전으로 맡겨진 대상건설에서 남다른 위훈을 떨치고있다. 파일가공기지건설에서 많은 몫을 맡은 이들은 공사조건이 매우 불리한 속에서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맹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가슴깊이 새긴 이들은 설비와 기공구들을 혁신하여 적은 로력으로 건설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결과 려단은 기본생산건물의 기초쌓기로부터 벽체축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과제를 자체의 힘으로 수행하고 층막치기와 벽체미장을 높이 세운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있게 되였다.

평양시려단 강동군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자강력으로 난관을 박차며 세멘트와 강재생산보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만장약한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모두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건축공사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단천개폐소에서— 본사기자 지원철 찍음

—함경남도송배전부 송전효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멸사복무의 자욱우에 꽃펴나는 인민의 웃음소리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날이 갈수록 거대한 진폭으로 천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

우리 당이 추켜든 이 전투적구호에는 이 땅에 기어이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이 꽃펴나고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천하제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력사의 분수령에서 울려퍼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울려주고있다.

온 나라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더욱 세차게 굽이치던 주체101(2012)년 2월 16일이였다.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이 고생을 하여서라도 인민들을 금방석에 앉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이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그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귀중한 병사들과 인민들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자고, 고생은 일군들이 하고 락은 인민들이 누리게 하자고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고생은 일군들이, 락은 인민들에게!

이런 숭고한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인민의 웃음꽃을 피워주시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이던가.

우리 당의 꿈은 곧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는것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리상을 꽃피우기 위한 헌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자신께서는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면서라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로고를 바쳐 키우신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두해전 개건된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여 행복의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이 우렷이 어려온다.

많은 비가 내리는 궂은날이였다. 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다.

산뜻한 생산건물들이며 드넓은 공장구내로 쭉쭉 뻗어나간 포장도로, 편의봉사시설들을 그쯘히 갖춘 훌륭한 청춘원과 동심세계가 그대로 어린 공장락아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곡산공장을 정말 훌륭히 개건하였다고,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이 면모를 완전히 일신하였다고, 모든것이 마음에 들고 보면 볼수록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또 하나의 소문거리,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더없이 만족해하시였다.

좋은 날에 오시여도 되시련만 인민들에게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을 하나라도 더 안겨주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내리는 궂은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혁명하는 멋, 가장 큰 희열을 느끼시는분이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준공을 앞둔 미림승마구락부를 돌아보실 때에도 다음해에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려고 한다고, 소박하고 근면하며 혁명적인 우리 인민들에게 무엇을 더 해주겠는가 하는 생각이 자신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인민을 위한 건설은 계속하여야 한다고 그처럼 뜨겁게 말씀하신것 아니랴.

언제인가 당의 은정어린 물고기를 받아안고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고 또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너무도 기쁘시여 자신의 심중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우리 인민들이 매일매일 이런 풍족한 생활속에 웃고 떠들며 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함에 우리 투쟁목표를 지향하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바탕으로 힘과 용기를 모아 백배하여 일들을 더 잘해나아가자고.

인민들의 기쁨어린 모습을 보시면서도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할 열화같은 사명으로 심장의 피를 더욱 끓이시는분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더 잘 모시려는것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하건만 인민을 위한 그이의 멸사복무의 길에는 명절날, 휴식날이 따로 없었으니 몇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산소공장건설장에 남기신 불멸의 자욱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고있다.

흙먼지날리는 건설장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게 된것으로 하여 일군들은 송구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런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시는 우리 원수님의 손에 보건산소공장건설형성안이 들려있을줄 어찌 알았으랴.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공장건설을 얼마나 중시하시였으면…)

이날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벌써 공장의 체모가 안겨온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공장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깊이 관심하시며 세심히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일떠세울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어찌 이뿐이랴.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손으로 막으시며 인민의 웃음꽃이 넘칠 유원지의 설계도를 펼치신분, 때로는 비물에 진창이 된 건설장을 찾으시고 란간도 없는 골조건물에 스스럼없이 오르시는분, 물고기들이 쌓여있는 하륙장에도 주저없이 들어서시며 희열을 느끼시는분, 새 살림집에 놓을 가구의 자리며 접속구의 개수까지 마음쓰시는분이 우리 원수님이시다.

하늘의 높이에도, 바다의 깊이에도 비길수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있어 이 땅에는 인민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할수 있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솟아나 인민의 웃음소리가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멸사복무의 자욱자욱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속에 아직은 어려운것, 부족한것이 많아도 어디 가나 희열과 랑만의 웃음꽃이 피여나고 보다 큰 승리에 대한 락관이 넘쳐나는것이 우리 조국의 현실이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다. 그중에는 억대의 재부를 자랑하고 경제장성을 떠드는 나라와 민족들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령토가 크고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고 눈이 부시게 화려해도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는 또 얼마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근본차이가 있으며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조국의 국력이 있다.

그렇다. 인민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의 동력이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그 어디에서나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강국이라는것이 이 세상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뜻이다.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로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의도가 현실로 꽃펴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실천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언제인가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어느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수산부문은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으며 우리가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예비는 바다를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죽으나사나 수산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오늘 우리 일군들이 어떤 결사의 각오와 투지로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명백한 대답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민생활문제를 놓고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확고한 관점, 죽으나사나 인민생활문제를 기어이 풀겠다는 의지로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할 때에 방도도 생기고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된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자!》

이것이 위대한 승리에로 부르는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의 분출이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과 열을 지니시고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우리 조국은 어디 가나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강원남

몸소 세워주신 대책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대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주체53(1964)년 12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뻐스를 리용하는 근로자들의 퇴근길을 돌아보자고 하시며 한 일군을 데리고 거리에 나서시였다.

어슬녁부터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더니 날씨는 점점 맵짜졌다. 뻐스정류소들에는 사람들이 뻐스를 기다리고있었다.

어느 한 뻐스정류소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근로자들과 함께 뻐스를 타시고 수도의 려객문제를 료해하시였다.

일군은 그이께 이젠 그만 돌아가시자고 몇번이나 말씀올렸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좀더 돌아보자고 하시며 다른 지구에도 나가시여 눈바람을 맞으시며 뻐스를 리용하는 근로자들의 퇴근길을 두고 깊이 마음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안의 뻐스운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집무실에 도착하시였을 때는 늦은 밤이였다.

그이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시는 길로 책상을 마주하시고 종이우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어나가시였다.

시간은 흘러 자정이 지난지도 퍼그나 오랬다.

일군은 초조해지는 마음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새날이 밝겠는데 다문 얼마만이라도 쉬실것을 그이께 간절히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였는가고 하시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저력있는 어조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을 위하시는 수령님의 심중을 헤아려볼줄 알아야 합니다. 인민들이 불편해하면 수령님께서 괴로와하시고 인민들이 안타까와하면 수령님께서 시름을 놓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인민을 위하고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인데 잠을 좀 덜 자면 뭐랍니까. 이왕 시작한 일이니 마저 끝냅시다. …

깊은 뜻이 담긴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 결심을 더욱 가다듬었다.

그러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책상우에 놓인 문건을 주시며 그동안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참고되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문건에 눈길이 가닿는 순간 일군의 가슴에는 뜨거운 격정의 파도가 일었다.

그이께서 심혈을 기울이시여 시안의 려객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손수 적어넣으신 문건이였던것이다.

그 문건에는 뻐스들의 운행구간과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주어 뻐스의 리용률을 높일데 대한 문제, 도로교차점들에서 승용차보다 인민들이 타는 뻐스를 먼저 통과시켜 운행속도를 높일뿐아니라 일군들을 인민의 충복이라는 사상관점으로 교양할데 대한 문제 등 당면하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적혀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대책안은 지금 있는 뻐스만 가지고도 긴장한 려객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는 과학적이고도 현실적인 묘책이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가시려는 우리 장군님의 낮과 밤은 이렇듯 위대한 헌신의 자욱자욱으로 수놓아졌던것이다.

본사기자 전광남

우리 식의 창조원칙

무엇을 하나 창조하여도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인민을 위하여 더 좋게, 더 훌륭하게 하는것이 창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일관하고도 절대적인 원칙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생명입니다.》

주체96(2007)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느 한 예술공연을 보아주실 때였다.

공연은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누가 보아도 흠잡을데가 없이 완전무결하다고, 대걸작이며 우리 민족의 재부라고 할수 있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일군들은 공연성과를 그렇듯 높이 평가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사상예술성이 높을뿐아니라 통속성이 잘 보장되였다고, 진정한 인민의 예술이라고 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5대혁명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실 때의 일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5대혁명가극창조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극을 우리 인민들이 쉽게 리해할수 있는 인민적인 가극으로 만드는데 기본을 두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특정한 가수들이나 특정한 관람자들을 위한 유럽식가극과는 달리 우리 인민의 감정과 정서에 맞고 누구나 쉽게 리해할수 있는 우리 식의 혁명가극을 창조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인민성과 통속성이 훌륭히 보장된 우리의 혁명가극을 보고 《가극의 왕국》이라고 자처하던 나라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경탄해마지 않았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깊은 말씀을 새겨안으며 그때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문학예술의 거장을 모신 긍지와 행복으로 한껏 부풀어올랐다.

그러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예술을 인민들이 좋아하고 누구나 다 리해할수 있는 인민적이며 통속적인 예술로 만드는것은 우리 당문예정책의 중요한 요구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쉽게 리해할수 있는 예술이라야 진정한 당적인 예술로 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창조사업에서의 인민성과 통속성은 당성을 내포하고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심원한 의미를 가슴깊이 새기는 창작지도일군들의 뇌리에는 고심참담하던 예술공연창조과정이 선히 되새겨졌다.

사실 예술공연창조과정에 일부 창작가, 예술인들속에서는 편곡에서 멋을 부리고 곡들을 별스럽게 꼬아놓는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군 하였다.

그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현상들을 제때에 바로잡아주시며 예술공연에서 인민성과 통속성이 철저히 구현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기며 일군들은 확신하였다.

우리 인민의 취미와 정서에 맞게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키는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시는 우리 식의 창조원칙이라는것을.

본사기자 한영민

친어버이의 다심한 사랑

인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위하여 혁명이 필요하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숭고한 세계를 보여주는 감동깊은 사실들중에는 함흥시 동흥산기슭에 자리잡은 신흥관이 전하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꽉 차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따르릉-

(이 깊은 밤 누가 걸어온 전화일가?)

무심결에 송수화기를 든 도의 책임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신 전화였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신흥관을 잘 꾸린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면 신흥관을 좀 볼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예. 보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올린 일군은 순간 머뭇거리지 않을수 없었다. 벌써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있었던것이다.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 밤도 퍽 깊었는데 다음날에 보아주셨으면 하는 의향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날에는 시간이 없을것 같아서 그런다고, 이제 곧 나가겠는데 우리가 나간다는것을 절대로 알려서는 안된다고 그루를 박아 이르시였다.

얼마후 신흥관에 도착하시여 식당의 여러곳을 돌아보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흥관을 잘 지었다고, 멋쟁이라고, 집만 봐도 국수맛이 절로 나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기쁘신 어조로 이 훌륭한 식당에 왔다가 그냥 갈수 없다고, 왔던김에 국수맛까지 보고 가자고 하시였다.

일군은 당황함을 금할수 없었다. 모처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어떻게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국수를 대접할수 있단 말인가.

일군의 이러한 심중을 헤아리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일상적으로 국수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것이니 준비할것도 없다고, 손님들에게 해주는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나온다는것을 알리지 말라고 한것도 사실은 그래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국수가 나오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릇을 가까이 당겨놓으시고 국수의 량은 적지 않은가, 육수맛이 어떠한가를 일일이 가늠해보시고 이만한 수준이면 괜찮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집은 요란하게 지어놓고 국수를 잘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그 집에 그 국수라고 하게 잘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하였다.

인민을 위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하시였으면 이렇듯 깊은 밤 현지에까지 나오시여 국수의 질까지도 가늠해보시랴.

잠시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흥관에서 하루에 국수를 평균 몇그릇씩이나 할수 있는가, 원자재는 정상적으로 보장되는가, 국수감은 주로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일군이 함경남도에 흔한 농마를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식당을 찾는 사람들속에 메밀국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그들의 식성에 맞게 농마국수를 기본으로 하고 메밀국수, 빵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봉사할데 대한 문제를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였다.

사람들은 가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색다른 음식을 맛보자고 식당에 찾아오군 한다. 이것은 하나의 생활이다. 그런데 어찌다 식당에 왔다가 입에 맞는 음식이 없어보라.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결코 스쳐버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인민들의 생활에서 그러운것이 없게 하여야 한다. …

마디마디에 인민에 대한 사랑이 넘쳐흐르는 그이의 말씀은 일군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한두가지 음식이 없다고 하여 그것을 탓하랴.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가정도 아닌 온 나라 인민들의 식성과 구미까지 헤아려보시며 이렇듯 깊이 마음쓰시니 정녕 우리 장군님처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는 위인이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흥관의 비품과 봉사설비도 인민들의 정서와 기호에 맞게 더 좋은것으로 바꾸어주고 필요한 원자재와 식료품의 보장체계도 세워주어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하도록 하나하나 세심히 관심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흥관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식당을 나서실 때는 벌써 새벽 3시가 넘었다.

어둠속으로 달려가는 승용차의 불빛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일군의 가슴속에는 더욱 뚜렷하게 새겨지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인민들의 생활에서 그리운것이 없게 하여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였다.

본사기자 정순학

마산땅이 전하는 이야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미더운 모습이 봉산군 마산리를 향하여 달리는 취재차의 차창으로 언뜻언뜻 비껴들었다.

풍요한 가을을 부르는 약동하는 대지의 숨결은 우리의 가슴을 마냥 부풀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마산리는 봉산군 남서부에 위치하고있다.

마산리라는 지명은 말을 많이 기르던 마동에서 《마》자와 마치 사슴이 누워있는 모양으로 생긴 산이라고 하여 불리운 《록와산》의 《산》자에서 유래되였다고 한다.

나라없던 그 세월 변변한 달구지길도 없던 마산땅이였다.

우리와 만난 김성철관리위원장은 그 옛날 너무도 척박하여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아오던 이 고장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으로 천지개벽되였다고 하면서 이런 감동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금으로부터 50년전 5월 어느날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함께 봉산군 마산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뜨락또르운전수들을 잘 교양하여 논밭갈이를 할 때 밭머리와 논모서리도 말끔히 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논모서리를 뜨락또르가 갈지 못하면 삽으로라도 일구어야 한다고, 협동농장들에서 논밭들을 규모있게 정리하고 물도랑도 치면서 논두렁과 밭머리를 알뜰하게 다룰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마산땅과 더불어 길이 전해지는 력사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봉산천뚝을 튼튼히 쌓고 장석공사도 하며 필요한 곳에는 세멘트구조물공사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농장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한치의 땅도 아끼고 사랑하시며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리도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

그날의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해주는 관리위원장의 목소리는 격정에 젖어있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 만복의 씨앗을 심어주시며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애국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어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후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일본새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뜨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여 밭머리와 논모서리를 책임적으로 갈도록 하는 한편 논밭들을 규모있게 정리하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일관하게 집행해왔다.

그 과정에 농장원들의 가슴에서는 한치의 땅도 귀중히 여기고 아끼려는 애국심이 소중히 싹트게 되였으며 영광의 땅을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 자랑찬 로정을 설명해주듯 드넓은 전야에 펼쳐진 흐뭇한 광경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규모있게 정리된 논밭들과 아지를 한껏 펼치고 푸른 잎새를 자랑하는 실한 벼모들, 알뜰한 일솜씨가 엿보이는 논두렁과 밭머리, 기운차게 내달리는 뜨락또르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전방을 지켜섰다는 자각,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로 떨쳐나선 농장원들의 기세는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수행에서 앞장서나가고있는 이곳 농업근로자들이였다.

우리는 싱그러운 풀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봉산천뚝으로 향하였다. 농장의 일군은 이 봉산천뚝에도 마산리를 위하신 우리 장군님의 사랑이 새겨져있다고 하면서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것이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이 나라 방방곡곡에 무수히 수놓아진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정녕 그 얼마일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뇌리를 쳤다.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긍지드높이 이곳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그 관철에 자신들의 순결한 량심과 땀을 바쳐가고있었다.

령도업적단위답게 농사일은 물론 축산과 체육 등 모든 면에서 군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일군의 이야기에 끌려 우리는 농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인상깊은것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이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은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하였다는 일군의 말에서 우리는 자력자강으로 미래를 앞당겨오려는 마산땅사람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이제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수많은 농장원들이 과학농사의 주인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갈 때 농장의 위력은 또 얼마나 백배해질것인가.

사회주의문화농촌의 체모에 맞게 손색없이 꾸려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행복넘친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울려퍼지고있었다.

산골사람들을 벌방부럽지 않게 잘살게 해주시려고 헌신의 자욱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을 마산땅사람들이 어찌 순간인들 잊을수 있으랴.

그 위대한 사랑을 천금보다 더 귀중히 간직하고 사는 마산땅사람들이기에 올해농사도 실속있게 하여 반드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것이다.

영광의 땅을 떠나는 우리의 가슴은 이런 격정으로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김일권

농장에 깃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경성군 일향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중앙동물원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우선 일군들부터가 중앙동물원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고있다.

또한 동물원의 모든 종업원들이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력사를 심장에 새겨안고 봉사활동과 관리운영을 더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모를 박고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교양사업을 통하여 중앙동물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멸사복무의 정신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당의 은정이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운 최적기보장

청단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청단군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의 최적기를 보장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특히 목적지향성있게 아래에 내려가 혁신적인 방도를 찾아쥐고 현실성있는 작전을 펼치고있는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일본새가 시사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매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데 기초하여 시기별 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올해의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한 문제를 심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하나같이 불리한 날씨조건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모든 사업을 과학적기초우에서 작전하고 설계하여야 최상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경영위원회일군들은 사색하였다.

그들은 모내기의 모든 공정들을 따져보면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혜를 합치였다. 이 과정에 지난 기간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모내기를 적기에 결속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단위들의 경험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일군들은 구월협동농장의 작업반, 분조들의 농사경험을 깊이 분석해보았다. 결과 그 비결의 하나가 모를 단련시켜 모내기를 한데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리고 한걸음 깊이 들어가 생물농약과 미생물비료를 효과있게 리용한것이 병충해막이와 모를 단련시키는데서 큰 은을 내였다는 사실도 밝혔다.

과학적인 담보를 찾아쥐게 된 군일군들은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책임일군은 참가자들에게 튼튼한 모를 기르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알려주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올해의 봄날씨가 불리한것만큼 모를 잘 단련시키고 병충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생물농약과 미생물비료를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앞선 농장들의 경험들을 실례로 들어가며 차근차근 설명해주었다.

보여주기사업의 실효는 컸다. 모내기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농장일군들은 모내기일정계획을 높이 세우고 분발해나섰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병충해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며 모를 잘 단련시키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심평농장, 청정협동농장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모종류별에 따르는 모의 생육상태, 잎수와 색을 보아가며 생물농약과 미생물비료를 과학기술적으로 리용하면서 모를 단련시키였다. 한편 군복합미생물비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미생물비료를 제때에 생산하여 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농업전선의 담당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모내기준비과정에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즉시 적절한 대책들을 세워나간것도 긍정할만 하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보다 모내는 시기가 늦어지는 조건에서 논두렁짓기, 물잡이, 써레치기를 5일이상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로력과 기계화수단이 제한된 조건에서 신통한 묘안이 나지지 않았다.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모내기적기를 보장할수 있었다.

경영위원회책임일군은 방도를 찾기 위해 즉시 청단협동농장에 내려갔다. 그것은 이 농장이 올해의 모내기준비에서 군적으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였기때문이였다. 그는 농장의 일정계획수행정형을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점을 포착하였다.

모든 작업반의 마른논써레치기와 논두렁짓기실적이 다른 농장들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였다. 알아본데 의하면 농장에서는 뜨락또르를 집중하여 마른논써레치기를 선행시키고 뒤따라 분조별로 논두렁짓기를 경쟁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논두렁짓기를 끝낸 포전순위로 물을 대면서 논써레치기를 내밀었다.

결국 많은 시간과 품이 드는 영농작업인 물잡이와 논써레치기를 제때에 결속하여 모내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줄수 있었다.

책임일군은 모든 농장 일군들이 이 단위에서처럼 모내기준비작업을 선행시킨다면 얼마든지 적기에 모를 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논두렁짓기, 써레치기, 물잡이를 앞세우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분발하여 군농기계작업소와 양수장들에 나가 뜨락또르와 양수기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너도나도 어깨를 들이밀었다. 그리고 뜨락또르의 만가동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물보장을 맡은 양수기운전공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 양수동력설비마다에서 만부하의 동음이 울리게 하였다. 결과 군에서는 모내기를 최적기에 끝낼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뜻깊은 올해의 모내기전투를 최적기에 결속하기 위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모내기시작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본받을만한것이다.

본사기자 전명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내기는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송림시 인포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모내기전투장이다.

세차게 나붓기는 붉은기, 힘있는 구호들, 써레치기를 다그치는 뜨락또르와 푸른 주단을 펼쳐나가는 모내는기계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이들의 앙양된 열의로 하여 전투장의 분위기는 고조되고있다.

1분조의 농장원들이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전투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있다.

운전공 송인호동무가 능란한 솜씨로 모내는기계를 몰아가고있다. 쉬임없이 일손을 놀리는 모공급수들인 리학춘, 윤금란동무들의 작업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모내는기계가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전진하는데 따라 모손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면서 실한 모들을 포전에 꽂아나간다.

푸른 벼모들이 봄바람에 하느적거린다.

어느새 포전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모내는기계가 방향을 돌린다. 기회를 놓칠세라 모운반공인 한정식동무가 날렵한 동작으로 모내는기계에 벼모들을 실어준다.

잠간사이에 줄대같이 실한 벼모들을 가득 실은 모내는기계가 또다시 전진하며 푸른 주단을 펼쳐간다.

긴장한 모내기전투의 순간순간을 이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작업반장 조영철동무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한다.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는데서 모내는기계의 가동률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작업반장은 지난 시기 대증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큰모의 모내기를 할수 있게 모내는기계를 개조하였는데 그것이 지금 큰 은을 내고있다고 덧붙인다.

푸른 주단 펼쳐진 포전들에 빈포기는 생기지 않았는가, 포기당 대수는 정확히 보장되였는가를 깐깐히 살펴보는 1분조장 김현성동무의 얼굴에 만족한 웃음이 비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투장의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또 한배미 넘어간다.》

어느새 한 포전의 모내기를 다 끝낸 모내는기계가 다음포전으로 넘어간다.

시간을 다투며 창조되는 위훈의 소식들이 전투속보판에 나붙는다.

《1분조안의 전투원들 첫시작이 좋다!

오전중에 계획된 모내기과제 150%로 넘쳐 수행!》

전투속보판에서 붓끝을 떼며 포전을 바라보는 작업반의 김보근부문당위원장의 마음은 저도모르게 깊어만진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봄 작업반의 포전을 찾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음성이 오늘도 귀전에 울려오는듯싶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자랑찬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이려는 이들의 심장의 분출이런듯 드넓은 전야에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진다.

…

봄명절 그날에도 우리를 찾아 오시여
농사이야기 나눠주시던 그 모습 그립습니다
…

본사기자 박영진

현지보도

시작이 좋다

송림시 인포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푸른 모판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길주군 평륙협동농장에서

풍요한 가을날의 황금벌은 봄날의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

튼튼한 모기르기에 알곡고지점령의 기본열쇠가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길주군 평륙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벼모판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해가며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하며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깊은 밤 박종익관리위원장은 서둘러 문밖을 나섰다.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퍼그나 차거워졌기때문이였다. 갑자기 차진 봄날씨에 벼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가 걱정이 앞선 그는 모판들을 돌아보려고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였다. 더우기 이날은 기온이 떡 내려가게 된다는 일기예보까지 받았으니 누워도 발편잠을 잘것 같지 못하였다.

어떻게 하면 벼모가 랭해를 받지 않도록 할것인가를 생각하며 걸음을 다그치는 그의 눈앞에 제3작업반쪽에서 움직이는 전지불빛들과 활활 타오르는 우등불이 보였다.

급히 모판에 다달은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모판관리공들뿐만아니라 작업반원들모두가 포전에 나와 박막에 자그마한 틈도 생기지 않게 꼼꼼히 여며주고있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군에 회의갔던 렴정남리당위원장과 조경봉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부원까지 모판관리공들과 어울려 부지런히 나래를 덮어가고있었던것이였다.

모판상태를 하나하나 알아보며 작업을 능숙하게 지휘하는 작업반장 리철수, 작업반기술원 장철남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의 미더운 모습은 관리위원장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올해 당에서 제시한 알곡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자고 이렇게 밤을 밝혀가며 아글타글 애쓰는 모두의 진정이 가슴에 뜨겁게 젖어들었던것이다.

올해 농장에서는 논벼농사에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던 지난해의 성과에 토대하여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안을 세웠다. 그리고 농장의 토양조건에 맞는 다수확우량품종선택으로부터 수천t의 유기질비료생산과 박막이며 활창대, 방풍나래를 비롯한 영농물자들도 원만히 갖추어놓고 영농공정들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왔다.

여기 제3작업반을 보더라도 모판관리공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맞게 모판관리를 잘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었다.

모판관리공들은 예견되는 날씨를 수시로 알아보면서 비바람에 비닐박막이 벗겨지지 않도록 새끼줄도 늘이고 물도랑도 내였다.

어찌 이곳 작업반뿐이랴.

씨뿌린 날자와 벼모의 생육상태에 알맞는 바람쏘이기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모판관리일지에 꼭꼭 기록하며 예견성있게 대책을 세워가고있는 제6작업반의 모판관리공들이며 모종류별에 따르는 물관리, 병충해방지 등 모든 일을 철저히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모를 충하없이 실하게 자래우고 있는 제2작업반의 모판관리공들…

비록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책임감을 안고 벼모기르기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미더운 농장원들이였다.

바로 자기 포전을 당중앙위원회 뜨락파 잇닿아있는 전투초소로 여기고 성실한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들이 있어 봄날씨가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모판들마다에서는 실한 벼모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는것이 아닌가.

관리위원장의 마음속에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모든 사업을 보다 대담하게 작전하고 과학적으로 지휘해나감으로써 당면한 모내기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나가야겠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잡았다.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켜나간다면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부족한것이 많아도 얼마든지 알곡생산에서 통장훈을 부를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지는것이였다.

지금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심장으로 받들고 뜻깊은 올해농사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모든 영농공정수행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앞선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문덕군 상팔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문덕군 상팔협동농장에서 모내기전투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있다. 줄대같이 실한 벼모들을 포전마다에 내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불같은 열의가 비껴있다. 농장에서는 마지막모가 나갈 때까지 벼모관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이 벼모관관리에서 중시한것이 있다. 일정하게 자란 벼모의 잎을 어느 정도 잘라주는것이다. 지난 시기 벼잎자르기를 진행하여 튼튼한 벼모를 키워낸 좋은 경험이 있기때문이다. 잎자르기를 진행한 벼모들은 다른것들에 비해 더 많은 아지를 쳤다. 특히 모판가운데부분의 벼모들은 이전보다 튼튼히 자랐고 아지치기도 잘되였다. 대체로 모판가운데 있는 벼모들은 빛합성 및 통풍조건이 불리하여 헛자라거나 아지치기에 지장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잎자르기방법을 받아들인 후부터는 이러한 부족점을 극복할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아지들도 하나같이 실하였고 포전에서의 초기생육도 더 좋아졌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벼잎자르기만 잘해도 벼모의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하지만 이 방법도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것은 모판의 벼잎을 일매지게 자르기가 어려운것이였다. 특히는 매 벼모들의 잎을 자르는데 많은 로력과 시간이 들었다.

아무리 앞선 영농방법이라고 해도 품이 많이 들면 크게 은을 낼수 없다.

김철민관리위원장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벼잎자르기를 손로동이 아니라 기계로 할 결심을 하게 되였다.

무슨 일이든 창조적지혜를 합치면 방도가 생기기마련이다. 그는 즉시 기계속내에 밝은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때 제4작업반 반장이 유휴자재로 회전날을 만들어 리용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타산해보니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이렇게 되여 몇개의 회전날을 한줄로 나란히 설치한 기계가 만들어지게 되였다. 이것으로 벼잎자르기를 해본 결과는 좋았다.

우선 잎자르기에 들던 많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할수 있게 되였다. 종전에 벼잎자르기를 진행하자면 적지 않은 로력을 뚝 떼내야 했다. 하지만 이 기계를 리용하였더니 두명이면 충분하였다. 그러면서도 하루작업실적은 비할바없이 높았다.

다음으로 좋은 점은 작업의 질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것이였다. 벼모들의 키에 따라 회전날의 높이를 임의로 조절하여 잎을 가쁜하게 자를수 있었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 기계를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직사업이 전개되였다. 농장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이 사업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짧은 기간에 모든 작업반들에는 벼잎자르는 기계가 마련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벼잎자르기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해나갈수 있었다.

앞선 영농방법이 은을 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긍정적이다.

본사기자 리충일

포전마다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일념으로 모내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산간지대축산을 방법론있게 내밀 때

천마군일군들의 사업에서

천마군에서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축산업발전에 힘을 넣어 소,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들을 대대적으로 기르고있다. 주목되는것은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통이 크게 해온 지난 10여년사이에 소는 1.3배, 염소는 1.4배로 마리수를 늘인것이다.

특히 군안의 어느 농장에서나 많은 부림소를 길러 땅을 걸구고 축력으로도 리용하여 그 덕을 크게 보고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리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개인축산을 발전시키며 어디서나 축산열풍이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을 정확히 알아야 걸린 문제해결의 옳은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

깊은 사색과 탐구로 작전과 타산을 면밀하게 하면서 소마리수를 늘이기 위한 방도를 내놓고 근기있게 실천하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가 바로 그렇다.

10여년전 군에서는 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송아지생산을 늘이는것으로 정하였다.

우선 어미소들의 영양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면서 송아지생산실적이 높은 관리공들에 대한 우대도 잘하였다. 일군들은 겨울철에 콩을 넣고 만든 호박곰을 모든 어미소에게 충분히 먹일수 있게 호박을 모든 농장의 축산작업반들에서는 2 000포기, 작업반 비육분조들에서는 1 000포기이상씩 심으며 비경지들에는 콩을 재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호박곰만드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정상적으로 총화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첫걸음을 뗀 군일군들은 송아지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해마다 7월부터 9월사이에 각 농장의 모든 어미소들을 멀리 떨어진 풀판구역에서 집중적인 이동방목을 하면서 새끼생산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한명의 관리공이 5~7마리정도의 어미소를 맡아 열흘에 한번씩 방목지를 옮겨가며 천막을 치고 집결쌍불이기를 하도록 구체적인 대책까지 따라세웠다. 그리고 이동방목을 하는 소관리공들의 작업 및 생활조건보장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충분히 해결해주도록 하였다.

또한 방목지들에 나가 관리공들과 함께 방목도 하고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기술적지도도 진행하면서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어미소들의 영양상태와 송아지생산과정을 따져보며 즉시에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 과정에 자기 고장에 흔한 삼지구엽초를 적극 리용하여 어미소 마리당 새끼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묘술도 찾아 실천하게 되였다. 결과 같은 마리수의 어미소를 가지고 첫해부터 종전보다 1.7배의 송아지를 생산할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무슨 일이나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내밀면 성과를 거두기마련이다.

염소기르기에서 무리별관리를 실속있게 실시한 사실을 놓고보자.

군에서는 한명의 방목공이 관리할 염소무리의 규모, 그 구성에 필요한 어미와 후보염소의 마리수를 확정하였다. 그리고 방목공들이 1년동안에 수행해야 할 새끼생산량과 후보염소의 증체량을 정해준 다음 해마다 9월말경에 그 정형에 따르는 총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세우면 목표를 정확히, 실속있게 달성할수 있으며 그것이 실지로 큰 은을 내게 되는것이다.

첫해에 영산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의 한 방목공은 자기가 관리하는 염소무리에서 종전보다 어미 마리당 새끼생산량은 1.6배, 후보염소의 증체률은 2배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방목공의 좋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군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전개되였다. 결과 모든 농장들에서의 평균 새끼생산량은 종전보다 1.2배이상, 증체률은 1.8배로 높아질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은 성과들은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와 방조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뿐이 아니다.

분산사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해마다 초겨울이면 모든 농장들에 구충약을 공급하면서 자체로 만든 돌배우림액으로 기생충구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수의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한것도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이다.

품은 들지만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찾아쥐고 이악하게 내밀면 얼마든지 산간지대에서의 소,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집짐승기르기를 잘할수 있다는것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인 최광철동무의 주장이다.

경험은 축산부문 일군들이 자기 단위앞에 맡겨진 과업과 수행방도에 대하여 제 집안일처럼 환히 알고 옳은 방법론을 찾아 이악하게 실천해나갈 때 당의 축산정책관철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매일 다시마생산계획 넘쳐 수행

신창수산협동조합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배무이와 배수리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신창수산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매일 다시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바다나물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조합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에 양식장면적을 늘이고 양식방법을 개선하여 더 많은 다시마를 수확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주도세밀하게 짜고들었다.

조합에서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띄우개와 수천m에 달하는 모줄을 비롯한 양식용물자들을 충분히 마련해놓고 다시마생산준비를 착실히 해나갔다. 조합의 일군들은 태풍과 해일의 영향이 적고 다시마의 생육조건에 유리한 수역들에 양식장을 정하고 그 면적을 계속 늘여나갔다.

김승열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양식장들에 나가 례년에 없이 잘 자란 다시마들을 제때에 수확하도록 첨입식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는 한편 양식장관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양식공들속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생산돌격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양식공들은 지난해에 빨리 자라고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다시마종자를 충분히 확보해놓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짜고들어 올해에 다시마작황을 마련한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그들은 불리한 바다날씨조건에서도 다시마모가 커가는데 맞게 빛합성조절을 기술적으로 하고 성장률에 따르는 순환식생산방법을 받아들이면서 매일 많은 다시마를 수확하여 실어들이고있다.

지금 조합의 일군들과 양식공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같은 열의밑에 년간 다시마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경철

이들처럼 교육사업의 작전가, 실천가가 되자

신의주시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 1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도, 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당조직들이 평양시당위원회처럼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 우리 나라를 가까운 시일안에 얼마든지 인재강국, 사회주의교육강국으로 만들수 있다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교육중시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지난해에 10여개의 학교, 유치원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시안의 전반적인 교육조건과 환경을 급속히 일신시킨 신의주시일군들의 사업기풍이 주목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 노래소리는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해나아가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힘찬 동음입니다.》

두해전에 새로 임명되여온 시당책임일군이 선차적으로 료해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가 시안의 교육사업실태였다.

당에서 그토록 중시하는 교육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책임일군은 수많은 학교, 유치원들을 차례로 돌아보았다.

시내중심에 위치한 학교, 유치원들은 번듯하게 꾸려졌지만 다른 교육단위들의 실태는 그닥 시원치 못했다. 그 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면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방대하였다.

그때 이곳 일군들이 잘한것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학교들을 본보기로 더욱 완벽하게 꾸려 모든 교육단위들이 도달해야 할 기준을 옳게 설정해준것이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당책임일군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동고급중학교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본보기창조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사실 동고급중학교는 시에서 많은 품을 들여가며 이미 꾸려준 상태였다. 문제는 학교의 교육자들은 물론 시일군들도 이에 만족을 느끼고있는것이였다.

지난해 4월 1일 새 학년도 개학식에 참가하였던 시당책임일군은 교수참관을 하고나서 학교에 갖추어져있는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의 리용정형과 교구비품구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만나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보다 일신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였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였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책임일군의 가슴속에는 동고급중학교꾸리기사업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 한편 시일군들속에서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지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 결심이 굳게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책임일군은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든 학교에서 개건사업과 관련한 일군협의회를 여러차례에 걸쳐 소집하였다.

일군들은 여러가지 형성안을 놓고 강당천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벽체미장과 장식은 어떻게 하겠는가 등에 대해 지혜를 합쳐가며 합의를 본 다음에는 공사를 전격적으로 내밀었다.

공사 전기간 책임일군은 수시로 학교에 찾아와 마감건재들을 비롯한 수많은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면서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깊이 마음썼다.

결과 개건전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고 새 교사가 번듯하게 일떠서 학교는 령도업적단위답게 그 면모가 환하게 일신되였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령도업적단위인 김금순고급중학교도 많은 품을 들여 짧은 기간에 보다 훌륭히 꾸려주었다.

본보기로 꾸려진 학교들을 돌아보며 시일군들은 후대들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였으며 교육지원사업에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려는 확고한 관점이 서게 되였다.

시의 책임일군들의 사업에서 본받을 점은 또한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는것이다.

책임일군들이 사회주의교육테제발표 40돐이 되는 지난해에 10여개의 학교교사와 유치원건설을 동시에 내밀것을 발기했을 때였다.

일군들속에서는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한개 대상씩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그들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었다. 시에서 벌려놓은 대상공사가 많은 조건에서 건설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를 보장하기가 어려웠던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무엇이겠는가.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면 언제 가도 끝을 볼수 없다. 승리의 신심을 안고 돌격전에 떨쳐나서자.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하는 시당책임일군의 모습앞에서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뜨거워졌다.

시일군들을 책임자로 하는 건설지휘부들이 조직되고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라한 돌격대들이 무어져 온 시가 그야말로 학교, 유치원건설로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새 교사들이 키돋움하며 일떠서기 시작했다.

책임일군은 매일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장악총화하고 걸린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하여 먼길을 쉬임없이 오갔다.

건설이 지연될수 있는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책임일군들은 즉시 현장에서 긴급협의회를 열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나갔다.

시당책임일군은 학교, 유치원건설을 일군들호상간, 단위들호상간 경쟁마당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열의를 한껏 북돋아주었다.

기적은 창조되고야말았다.

지난해 풍서소학교, 동하소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교사와 유치원건설이 결속됨으로써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던것이다.

이런 놀라운 변천을 두고 교육자들과 학부형들은 어머니 우리 당의 후대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더욱 심장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올해에도 시에서는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모든 학교, 유치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건설 및 개건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때에 몇개의 학교를 건설하자고 하여도 많은 품이 든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모든 학교, 유치원들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짧은 기간에 일신시키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이 사업을 전격적으로, 완강하게 내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통이 큰 작전과 실천과정을 통해 찾게 되는 결론이 있다.

당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겠다는 일군들의 비상한 각오와 헌신적인 투쟁정신에 교육사업발전의 중요한 비결이 있다는것이다.

해당 지역의 교육조건과 환경은 일군들의 후대판과 애국심이 력력히 비끼는 거울과 같다.

당의 숭고한 후대판, 미래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교육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신의주시일군들의 모습이 그처럼 돋보이고 그 경험이 우리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본사기자 김명훈

현실에서 더 큰 은을 낼수 있게

남포농업대학에서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고있는 단위들가운데는 남포농업대학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기술의 알찬 열매로 풍년로적가리를 높이 쌓을 애국의 마음을 안고 농업생산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문제들을 종자로 틀어쥐고 연구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이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의 기세가 매우 높다.

이들의 농업과학연구사업에서 최근에 주목되는 점은 현실에서 온이 날 때까지 연구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람조류원균생산기지를 꾸려놓은데 이어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으며 가물견딜성과 소금기견딜성이 강한 논벼품종육종과 관련한 연구에도 큰 힘을 넣었다.

뿐만아니라 능률높은 여러가지 농기계를 제작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대학의 일군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더 높은 연구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전진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대학에서는 우선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 시제품으로 제작완성한 이삭먹임식벼종합수확기의 기술적특성을 종전보다 훨씬 개선하는데 힘을 넣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작업속도를 종전보다 빠르게 하면서도 경량화된 새로운 이삭먹임식벼종합수확기를 설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이 지금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대학일군들은 또한 지난 시기 유기질비료생산과 토지개량을 목적으로 연구도입했던 람조류의 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람조류의 활성을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교원, 연구사들은 그것을 집짐승들의 먹이문제해결에 리용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도 완강하게 내밀었다.

많은 생산현장들에서 오리와 돼지를 비롯한 집짐승들에게 람조류를 리용하여 만든 발효먹이의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시험해본 결과 콩깨묵을 절반이나 절약하면서도 집짐승들의 증체률을 보장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확립하게 되였다.

단백질먹이를 절약할수 있게 한 남포농업대학 교원, 연구사들의 연구성과는 여러 축산기지들에서 호평을 받고있으며 각지에서 도입신청이 계속 들어오고있다.

이미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더 높은 연구목표를 세우고 현실에서 온이 날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도록 한 이곳 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은 대학의 모든 과학연구력량이 더욱 분발하게 한 계기로 되였으며 그로 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은 계속 타번지고있다.

대학일군들의 사업과정은 무엇을 시사해주고있는가.

하나의 연구성과를 이룩한것을 두고 만족해할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보다 큰 은을 나타낼수 있게 누구나 머리를 쓰고 방도를 찾으며 완강하게 실천한다면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더 많은 성과들이 쏟아져나오게 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당의 전략적구호를 뼈속깊이 조아박으며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를 새로운 목표점령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또다시 비약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는 남포농업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앞으로의 사업성과가 기대된다.

본사기자 백성근

혁신에로 추동한 힘있는 경제선동

얼마전 금속공업부문의 여러 대고조전투장들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방송선동활동이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이번 방송선동활동은 각 도들에서 선발된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들에서 경연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진행된 경연에는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량강도, 라선시에서 온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연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대야금기지의 하나인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깃들어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반영하여 격동적인 방송선동을 진행하였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의 경연에 참가한 황해북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 강원도의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은 주체철을 기어이 성공시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결사관철한 황철의 로동계급이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의 기상을 높이 떨쳐 오늘의 혁명적총공세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로 되여줄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온 방송원들은 더 높은 강철증산성과를 당부하는 도안의 인민들의 편지를 천수백통이나 안고와서 이곳 로동계급의 전투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당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도 평양시와 자강도, 평안북도, 남포시안의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이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당정책을 깊이 연구학습한데 기초하여 호소성이 강하고 시대정신이 세차게 맥박치는 방송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현장방송선동, 출근길방송선동, 혁신자축하방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연은 격동하는 현실의 요구와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기발하고 혁신적인 방송선동방법들이 수많이 창조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직장과 류동층가스발생로건설장,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직장, 압연직장,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산소열법용광로직장, 가스발생로직장을 비롯한 여러 전투장들에서 각지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은 여러가지 청량음료와 시원한 랭국도 안겨주면서 로동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해당 기업소의 연혁과 현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열의, 작업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승리의 5월》,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를 비롯한 노래들과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나는 로동자의 아들이다》와 같은 시들을 능동적으로 배합하면서 진행한 경제선동의 실효는 컸다.

경연에 참가한 방송원들이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고 춤판도 펼쳐놓고 성의껏 마련한 수십종의 많은 지원물자들도 안겨주면서 힘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렇듯 우리 당의 사상으로 만장약된 전투적인 화선선동과 진정어린 고무격려로 하여 나라의 맏아들인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혁명적열정은 더욱 고조되였으며 그것은 그대로 생산적앙양과 혁신적성과로 이어지고있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경제선동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건

자기의 손으로 창조해가는 멋

강령군농기계작업소에서

얼마전 번듯하고 규모있게 정돈되여있는 도로를 따라 강령군농기계작업소 정문에 들어선 우리는 김명준지배인을 만나 이런 말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일터가 참 알뜰하니 첫 느낌부터 다릅니다.》

그러나 정작 작업소구내를 둘러보니 다시금 감탄이 절로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었다. 말그대로 수림화, 원림화된 작업소의 환경은 알뜰하다는 한마디 말로는 다 형용해내기 어려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주변환경을 잘 조성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먼저 작업소에서 자체로 나무모들을 키워내고있는 양묘장으로 향했다. 비록 크지 않았지만 매해 작업소와 그 주변에 심을 수많은 나무모들을 키워낸 《공로있는》 양묘장이였다.

작업소의 전세대 주인들로부터 수림화, 원림화된 일터를 물려받았다는 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새삼스럽게 둘러보니 정말 수십년 실히 자랐을 수삼나무들이 설레이고있었다.

거목들과 대조를 이루며 곳곳에 뿌리내린 수많은 애어린 나무들은 전세대들의 훌륭한 모범을 따라 작업소를 더욱 아름다운 공원속의 일터로 꾸려가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을 엿볼수 있게 해주었다.

작업소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것은 어디라 할것없이 구색이 맞게 틀어앉은 조각들이였다.

관리청사와 각 작업반들의 경계라고 할만 한 지점에 여덟개의 다리에 권투장갑을 낀 문어조각이 조명등을 머리에 인채 서있었다.

문어다리들이 가리키는 방향에 관리청사와 작업반들, 휴식터 등이 꾸려져있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조각은 이곳의 류다른 《안내원》이였다.

참 신통한 착상이라는 우리의 말에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종업원들이 생각해내고 조각한것입니다.》

양어장에도 바위에 걸터앉아 낚시대를 척 드리운 곰조각을 비롯하여 저절로 웃음을 머금게 하는 동물조각들이 여러개나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일터의 어디서나 푸르러 설레이는 나무들의 밑둥에 송이버섯조각이 다문다문 박혀있는가 하면 비둘기, 다람쥐, 꿩 등을 형상한 조각들도 있었다.

이곳 작업소 종업원들이 지닌 일터에 대한 뜨거운 애착을 느낄수 있게 해주는 인상깊은 조각들이였다.

곳곳에 휘날리는 붉은기들과 작업반들에서 울려나오는 기계의 동음만 아니라면 이곳은 그대로 하나의 공원을 방불케 했다.

휴식터에서도 우리는 쉬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거목의 시원한 그늘아래는 새 품종의 파아란 잔디가 덮여있고 여러가지 동물조각들과 각이한 모양의 바위돌들을 솜씨있게 쌓아올린 모습도 특색있었다.

지배인은 우리에게 저 사슴조각은 작업소부문당일군이 직접 만든것이고 또 학조각은 농기계진채, 부루, 쑥갓을 비롯하여 남새를 떨구지 않고 보장한다니 얼마나 좋은가.

남새온실만 보아도 자재를 많이 들이지 않고 농기계보관창고벽을 리용하여 세웠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남새만으로도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 남는다는것이였다.

어디를 둘러보나 주인다운 일본새를 느낄수 있게 하는 일터, 자기의 손으로 창조하여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어 긍지와 보람이 넘치는 일터였다. 그러니 작업소앞에 말겨진 과제수행에서도 언제나 성과가 이룩되고있는것은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작업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많은 농기계들을 농장들에 보내준 기세로 풍년가을을 마중하기 위한 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공원속의 일터, 자기 손으로 가꾼 열매들이 무르익는 일터에 넘치는 혁신의 동음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었다.

우리의 마음을 읽은듯 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일터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사업에서도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작업소를 훌륭히 꾸리기 위해 종업원들모두가 원예사가 되고 조각가가 되고 건설자가 되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창조해가는 멋이 제일입니다.》

자기 손으로 창조해가는 멋! 참으로 의미깊은 말이였다.

봄, 여름에는 꽃바다, 가을에는 과일동산이라는 강령군농기계작업소, 이곳에서 우리는 농업전선의 믿음직한 병기창을 지켜가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깐진 일본새, 풍년가을을 안아오기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들을 뜨겁게 새겨안게 되였다.

김수정

제2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제2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개막되였다.

우리 나라와 중국, 이란 등 여러 나라의 260여개 회사들이 참가한 전람회에는 전자, 기계, 건재, 운수, 보건, 경공업 및 식료일용공업부문에서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제품들이 출품되였다.

개막식이 21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였다.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 대외경제상 김영재동지,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철동지, 경제무역부문 일군들과 여러 나라의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국제전람사 사장 박웅식동지의 개막연설에 이어 대외경제성 부상 오룡철동지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사이의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는 공동의 지향과 념원을 안고 제2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단성원들과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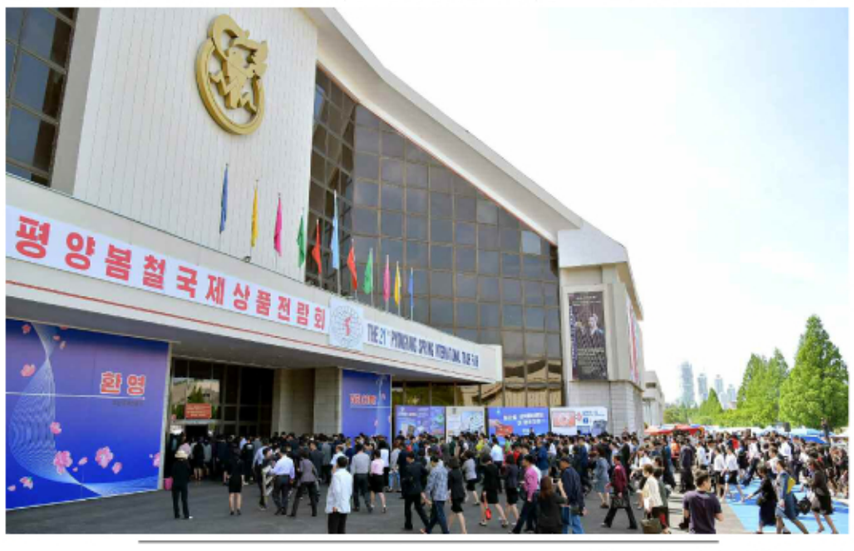
그들은 전람회가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과 교류를 도모하고 경제적발전을 추동하는 국제적인 회합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는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보다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전람회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로씨야청년조직련합대표단 도착

그리고리 뻬뚜슈꼬브 로씨야청소년련합민족리사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청년조직련합대표단이 21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 박명진동지와 쎄르게이 찌호미로브 주조 로씨야련방대사관 참사가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밝은 눈에 비낀 따뜻한 사랑과 정

류경안과종합병원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가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 인민적인 보건제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습니다.》

명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흔히 있는 례사로운 일이다.

하지만 안변군에서 살고있는 리기영동무에게는 사진기앞에 선뜻 나설수 없는 마음속고충이 있었다.

그는 안과질병을 오래동안 가지고있었는데 이것으로 하여 사람들앞에 좀처럼 나서기를 꺼려하였다.

우리가 류경안과종합병원에 입원한 리기영환자를 만났을 때 그는 이곳으로 오게 된 동기부터 이야기하였다.

자기의 마음속고충을 그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하고 오직 말은 일만 직심스레 하던 어느날, 자리에서 일어서던 그는 자기의 주위가 서서히 캄캄해지는것을 느끼였다.

순간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정한 안해와 직장사람들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것 같은 위구심을 안고 그는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서는 검진끝에 그의 눈상태가 실명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리였다.

(이제는 가족들의 짐이 되여 한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러했던 그를 희망의 봄빛이 따뜻이 감싸안았다.

류경안과종합병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에 그는 시력을 되찾게 되였던것이였다.

친혈육같이 살뜰한 안내과의 의료일군들을 대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의 고충을 터놓고싶은 충동이 불쑥 솟구쳤다.

생각끝에 김연희과장이 있는 의사실문을 두드리려던 그는 과의료일군들이 하는 말에 들었던 손을 내리였다.

《리기영환자가 눈때문에 마음속고충인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눈을 마지막까지 책임집시다.》

과의료일군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어느새 알고 다음수술을 토론하고있다는것을 느낀 리기영동무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는 지금껏 의료일군들이 자기를 위해 어떤 정성을 기울였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다만 매일 눈상태를 보는 의료일군들의 맑은 눈동자가 자기의 망막에 새겨지군 한다는것을 느꼈을뿐이였다. 하기에 그는 수술장에서 담당의사 주미옥동무의 얼굴에 돋은 땀방울을 보니 가슴속에 불덩이가 내려앉는것 같았다고 목메여 이야기하였다.

병원에서 퇴원하면 제일먼저 가족사진부터 찍겠다고, 사람들을 피해다니던 지난날과 결별하고 그들에게 병원에서 보고 듣고 느낀 하많은 사연들을 알려주겠다는 소박한 그의 말속에서 우리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불같은 모습도 읽을수 있었다.

하여 우리는 안내과 의료일군들도 만나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어떤 의료일군의 정성이나 의술보다도 병원의 곳곳에 흘러넘치는 위대한 어버이의 열화같은 사랑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얼마나 값비싼 안과용의료설비들이 인민들의 시력보호와 눈치료에 이바지되고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고마움으로 한껏 젖어있었다.

오늘도 이곳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당의 사랑과 온정이 사람들의 생활속에 더욱 속속들이 가닿도록 하기 위해 지극한 정성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보람찬 로동과 생활속에 꽃펴난 재능

민용항공총국 로동자 김호식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투쟁속에 생활이 있고 생활속에 투쟁이 있는 법입니다.》

광명성절경축 제7차 전국소묘축전에는 민용항공총국 로동자인 김호식동무가 창작한 작품들도 전시되여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국의 숨결을 반영한 그의 소묘작품들에는 아름다운 꿈을 안겨주고 재능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준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바쳐가는 로동자미술가의 불타는 창작적열정이 뜨겁게 슴배여있었다.

나의 스승

김호식동무가 미술가가 되려는 소박한 꿈을 처음으로 간직한것은 송림땅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였다.

온 나라가 강철전선을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아버지가 황철로 탄원하자 온 가족은 송림땅으로 이사를 왔다. 김호식동무의 꿈많던 소년시절은 황철의 로동계급속에서 새롭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황해제철소(당시) 로동자로 일하던 아버지는 그후 직관원을 하면서 생산전투에 떨쳐나선 황철로동계급을 고무격려하였다.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황철로 한달음에 달려가군 했던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는 속보판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눈에 익혀나갔다.

언제부터인가는 그도 아버지처럼 온몸이 그대로 불덩어리가 되여 일하는 압연공들의 모습을 소묘해나갔다. 색을 먹인 붓으로 덩지큰 압연기를 그리기도 했다.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황철로동계급의 벅찬 생활속에서 소년의 꿈은 점차 크게 자라났다.

그가 중학교시절에 그린 선전화 《강철전선에 더 많은 과철을!》은 학생미술전람회에서 높이 평가되였다. 《철의 도시 아이들》, 《용해장을 찾아서》도 사람들속에서 좋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철의 도시는 로동자의 아들이 지닌 첫 꿈을 아름답게 꽃피워준 비옥한 삶의 토양이였으며 쇠물폭포 쏟아지는 황철의 로동계급은 미술창작의 첫 스승이였다. 이렇게 그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낳는 로동계급의 투쟁과 생활을 사랑하게 되였던것이다.

로동자미술가의 기쁨

송림땅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김호식동무는 조국보위초소에 선 후에도 미술창작을 계속 해나갔다. 병사화가가 그린 그림들은 중대의 자랑이 되고 전우들의 기쁨이 되였다.

이 나날에 그는 꿈에도 바랄수 없던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다.

어느 한 미술전람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그린 작품도 몸소 보아주시며 평범한 인민군군인들이 훈련의 나날에 무르익힌 미술적재능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군사복무의 나날 그는 《새들도 집이 있건만》, 《하늘에서의 성과는 땅에서부터》를 비롯한 우수한 미술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며 병사화가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갔다.

그는 제대되여 민용항공부문에서 일할 때에도 창작의 붓대를 놓지 않았다.

풍성한 미술창작의 열매들로 위대한 장군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리라.

이런 간절한 소망을 안고 그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수십년세월을 성실하게 일해오면서 부피두터운 미술창작수첩을 한권 또 한권 쌓아나갔다.

넓고넓은 활주로, 려객기가 창공높이 새겨가는 비행운을 바라볼 때마다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대한 강렬한 사랑과 더없는 긍지감이 그의 가슴속에 가득 차올랐다.

하여 그는 로동생활의 나날에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여 전국로동자미술전람회, 전국미술축전 등에 내놓았다. 그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봉사에 이바지하는 여러건의 도안들도 창작하였다.

그는 총국일군들의 적극적인 관심속에 마련된 자기의 《로동자창작실》에서 오늘도 청춘의 활력을 안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웅장화려하게 일떠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의 모습을 훌륭한 필치로 화폭에 담기 위해 애쓰고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철의 도시에서 살던 어린시절의 추억과 황철로동계급의 정깊은 모습들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서 아름답게 꽃펴났던 병사화가의 삶을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그는 고마운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자식들도 재능을 활짝 꽃피워 훌륭한 화가가 되라고 맏아들의 이름을 뜻이 깊게 지었다.

그는 평양미술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당부한다.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도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는 위대한 사랑의 품,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본사기자 리수정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 이 영예를 빛내여가리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촉매직장 로동계급

불가능을 모르는 자강력의 강자들,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일욕심많은 사람들,

이것은 지난 기간 무연탄가스화공정에 절실히 필요한 촉매생산에서 자랑찬 위훈을 새겨온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촉매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남흥의 로동계급이 안겨준 정다운 호칭들이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露고헤치며 주체비료증산을 위한 촉매생산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가슴속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잡고 있는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이 아니라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으로 당과 수령을 받드는 위대한 인민의 정신력을 믿고있으며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있습니다.》

지난 1월초 직장로동계급앞에는 무연탄가스화공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저온변성촉매, 가수분해촉매, 메탄화촉매의 시험생산공정을 단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꾸려야 할 전투과업이 나섰다.

지난 시기 하나의 촉매생산공정을 꾸리는데 여러달이 걸렸다고 볼 때 그들이 받은 공사과제는 어렵고도 방대한 과업이 아닐수 없었다.

그러나 직장로동계급의 가슴은 하나의 지향으로 맥박쳤다.

자력갱생의 마치를 높이 들고 수입에 의존하던 촉매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여 주체비료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릴 맹세를 저저마다 토로하는 종업원들의 열띤 모습들을 바라보는 직장장 김수길동무의 가슴에는 신심이 백배해졌다.

문득 그의 눈앞에는 몇해전 탄산가스탈류촉매생산공정을 확립하던 때의 일이 방불하게 펼쳐졌다.

그때 공업기술연구소 촉매연구실 연구사들의 고심어린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끝에 실험실적 방법으로 성공한 탄산가스탈류촉매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해 직장로동계급이 헤쳐온 길은 실로 간고하고도 험난하였다.

설비제작 및 조립전투에서 제일 애로를 겪은것은 촉매의 강도와 질을 보장하는 스크류성형기제작이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성형기제작에서 실패가 거듭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저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기어이 만들어낼 의지를 안고 떨쳐나선 직장로동계급의 열굴마다에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은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대로 살며 투쟁해나갈 결사의 맹세가 비끼있었다.

이들은 성형기제작의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다. 자그마한 가능성에도 서로의 지혜가 합쳐지는 속에 설비관리원 오광석동무가 성공을 담보하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대학경력도 없는 그가 이런 착상을 해내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오광석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하루빨리 이 촉매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해야 주체비료생산의 정상화를 보장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직장로동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몫을 맡아 수행할수 있는 나라의 대화학공업기지로 꾸려주시려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언제나 심장속에 안고 사는 이들이다.

받아안은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의 실천이 없다면 어찌 남흥의 로동계급이랴.

직장로동계급은 스크류성형기제작에 이어 원료파쇄기, 수송기, 밀폐식원료선별채, 혼합기 등 탄산가스탈류촉매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자체로 설계제작하여 단 몇달만에 촉매생산의 공업화를 완성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

직장장 김수길동무는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가스화공정에 쓰이는 촉매들을 모두 국산화하여 주체비료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릴 열의밑에 떨쳐나선 종업원들의 앙양된 기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작업조직을 따라세웠다.

직장로동계급은 방대한 설비제작에 드는 품을 줄이기 위해 이미 있던 설비들을 새 촉매생산공정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여러개의 촉매생산공정을 일떠세우는 작업장은 그야말로 남흥로동계급의 투쟁본때를 과시하는 격전장이나 다름없었다.

제한된 작업공간을 립체적으로 리용하기 위해 현장기사 정명길동무는 사색에 사색을 이어가는 속에 설비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리작업반의 조자성, 김철옥동무는 낮에 밤을 이어 용접전투를 들이대며 설비조립일정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생산4작업반 반장 리복재동무는 성형기에서 나오는 촉매들의 강도가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되지 못하고있을 때 고심어린 탐구로 합리적인 점결제배합비률을 찾아내고야말았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의 마음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지난 2월말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촉매들의 시험생산공정을 확립한 이들은 지체없이 시운전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어깨성을 쌓고 긴장하게 지켜보는 속에 생산공정에서 나온 촉매들의 질이 높다는것이 확증되였을 때 이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직장로동계급의 자랑찬 투쟁성과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한길로 내달릴 때 흙지 못할 난관이 없음을 다시금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오늘도 촉매직장의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자력갱생을 잘하는 공장이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은 전세대 로동계급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살며 투쟁해나갈 열의에 넘쳐 혁명적인 총공세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건 일

경성군중소형발전소운영사업소에서

산촌의 아름다운 불빛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경성군의 상온포일대는 우리 나라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들중의 하나이다. 수려한 산발과 맑고 시원한 공기, 지줄대며 흐르는 온포천, 더운 김을 뿜어올리며 땅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온천…

그러나 자연의 경치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고향땅을 더 훌륭히 가꾸어갈 소중한 마음들이 안아온 이채로운 풍경에야 어이 비길수 있으랴.

최근 상온포에 또 하나의 류다른 화폭이 펼쳐졌다. 온포천을 따라 줄줄이 늘어선 계단식발전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되여 이 지구는 비록 깊은 산골이여도 전기가 남아돌아가는 고장, 아름다운 생활이 활짝 꽃피는 살기 좋은 곳으로 전변된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성군 온포천에 자리잡고있는 계단식중소형발전소를 몸소 찾아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포3호, 4호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발전기관리운영을 정상화하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데 대해 간곡하게 가르쳐주시였다. 그후 온포휴양소와 주변협동농장에 필요한 전기를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던 발전소는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가동을 멈추게 되였다.

지난해 3월 온포천의 계단식발전소를 돌아보며 군당책임일군은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

곧 군당위원회적인 협의회가 진행되고 발전소개건보수를 위한 준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였다. 경성군중소형발전소운영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투쟁의 앞장에 섰다.

3호발전소 언제보수를 위한 콩크리트타입전투때였다.

땅밑에서 끊임없이 솟구쳐오르는 물은 단 수십명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하는 언제콩크리트타입공사에서 큰 난관이 아닐수 없었다.

이른새벽부터 허리까지 치는 물속에서 시작된 언제콩크리트타입공사, 콩크리트치기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볼 때까지 잠시도 중단할수 없는 공사이기에 휴식과 교대가 따로 없었다.

사업소일군들인 김봉일, 림병호동무가 앞장에 서고 윤광남, 서창림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그뒤를 따랐다.

하여 사업소에서는 공사를 시작한지 16시간만에 수십㎥에 달하는 언제콩크리트타입공사를 전부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발전기조종반을 현대화하고 발전효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의 나날에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이 새겨졌던가.

전자공업성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발전기조종반현대화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후 사업소에서는 조업한지 수십년이 되여오는 발전기수차실을 통채로 들어올리고 부식된 압력판과 수차실본체바킹개조전투를 벌려 수차날개의 회전속도를 높임으로써 시간당 전력생산량을 훨씬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오늘 상온포일대에 어둠이 깃들무렵이면 산기슭마다에 들어앉은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편의봉사시설들에서는 밝은 불빛이 흘러넘치고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산촌의 고요를 깨치며 끝없이 울려퍼진다.

온포협동농장의 모든 세대들에서 전기로 밥을 짓고 전기로 구들을 덥히며 문명한 생활을 누려가는 자랑찬 현실, 이것은 수령의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보다 휘황한 래일을 위해 투쟁해나가는 경성군의 일군들과 군중소형발전소운영사업소 종업원들의 애국헌신이 안아온 귀중한 성과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포전의 참된 주인이 되여

대관군 신온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원들

온 나라의 협동벌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우리가 앞장서자.

이런 드높은 열의로 심장을 끓이는 농업근로자들속에는 대관군 신온협동농장 농산제2작업반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얼마전 포전으로 종종걸음을 놓으며 작업반장 정석준동무는 바람속도를 가늠해보았다. 옷속으로 스며드는 봄바람이 감촉되면서 기온이 퍼그나 내려갈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차진 봄날씨에 벼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가 걱정이 앞선 그는 걸음을 더욱 다그쳤다.

어떻게 하면 벼모가 랭해를 받지 않도록 할것인가를 궁리하며 모판에 다달은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모판관리공들뿐아니라 작업반원들모두가 모판의 여기저기를 살피며 분주히 뛰여다니고있었던것이다.

료히리가 저려드는것을 느끼며 그는 농장원들과 한덩어리가 되였다.

모판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박막에 틈이 있을세라 꼼꼼히 여며주는 농장원들을 믿음어린 눈길로 일별하는 작업반장의 심중에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다.

거름더미이자 쌀더미라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 지난해보다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밤시간도 아까와 전지불을 켜들고 포전들에 거름을 실어내던 농장원들, 자기 집에서 생산한 질좋은 거름을 지력이 낮은 포전을 담당한 농장원들에게 아낌없이 가져다주던 선동원들, 작업의 실참에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농장원들에게 권하며 흥겨운 노래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락천가로 소문난 2분조장…

작업반에서는 올해에 지난해의 경험에 기초하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에 맞게 영농물자들도 원만히 갖추어놓았으며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예견성있게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도 따라세웠다.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뛰고 또 뛰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 우리의 힘으로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겠다는 굳은 각오가 바위처럼 자리잡고있었다. 그 마음들에 떠받들려 봄날씨가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모판들마다에서는 실한 벼모들이 푸르싱싱자라고있는것이다.

《올해에는 거름도 듬뿍 내고 벼모도 충실히 키웠으니 비배관리만 잘하면 다수확은 문제없습니다. 모두들 자신이 있습니까?》

농장원들과 함께 일손을 다그치며 1분장이 하는 말이였다. 1분조원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1분조의 기세가 간단치 않은데 이러다 우리 분조가 뒤지지 않을가요?》

2분조장이 한눈을 찔끔하며 능청스레 말을 이었다. 그런데 2분조원들의 대답이 걸작이였다.

《우린 오히려 1분조가 숨가빠할가봐 더 걱정입니다.》

시대의 숨결에 박동을 맞추며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려는 그 승벽심과 열의는 얼마나 좋은가.

정석준동무가 미소를 지으며 의미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모두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전초병들인데 누가 뒤지겠다고 하겠소. 뒤지면야 전초병이 아니지. …》

농장원들이 진중한 기색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사명감을 자나깨나 깊이 새기고 조국이 맡겨준 나의 포전에 성실한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우리의 농업근로자들, 이런 미더운 전초병들이 지켜가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에서는 반드시 승전포성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한생을 한초소에서

함흥철도국 함흥조차장객화차대 김선녀동무

함흥조차장 객화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김선녀동무를 존경한다. 그것은 남자들에게도 힘든 자재보장사업을 한생 해오기때문이다.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누가 보건말건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그의 헌신으로 객화차대에서는 지난 기간 화차수리과제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누가 보건말건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을 빛나게 사는 사람입니다.》

김선녀동무는 철도에서 근 40년을 근무하고있다. 그는 자재보장을 위해 늘 출장길에 있었다. 녀성에게 있어서 그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한번 자기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본적이 없다.

그가 처음 자재창고를 맡게 되였을 때 철도에서 오래동안 자재보장사업을 한 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철도가 인민경제의 앞장에서 내달리자면 우리 자재일군들이 철도부문의 앞장에서 달려야 한다. 자재보장이자 수송실적이라는것을 언제나 명심하자.

그날 김선녀동무는 기적소리 높이 울리며 두줄기 궤도우를 기운차게 달리는 화물수송렬차를 바라보면서 맡은 일을 잘하리라 굳게 마음다지였다.

직업에 대한 애착은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을 낳는다.

그는 언제나 창고를 알뜰하고 규모있게 관리하였고 자재보장사업을 짜고들었다. 때로는 자재인수원이 되여 공장, 기업소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자재부원으로 임명된 다음부터는 더욱 바삐 뛰여다녔다.

화차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은 수십종에 수백점에 달한다. 이것을 보장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자기의 어깨우에 지워져있다는 책임감으로 김선녀동무는 언제 한번 신들메를 풀어볼새가 없었다.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하면 화차수리기일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화물수송에 지장을 주는것은 물론 나라의 경제발전이 떠지게 된다는 생각으로 그는 하나의 부속품이라도 더 마련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원산으로, 라흥으로 그가 오고간 거리를 다 합치면 수천리는 잘된다고 한다.

자재를 인수해오다가 차가 뜻밖에 고장나 인적드문 산길에서 한밤을 지새운적은 얼마이며 자재보장단위의 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같이 일도 하고 후방사업을 하면서 끼니를 번진적은 또 그 얼마이던가. 그 열성에 감동되여 현장의 로동계급은 부속품을 제기일에 보장해주기 위해 애를 썼다.

언제인가 많은 자재를 싣고 밤이 퍽 깊어 객화차대에 도착한 그를 보고 일군들이 이제는 나이도 있는데 그러다가 쓰러지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걱정한적이 있었다. 그때 김선녀동무는 하고싶어서 하는 일은 힘든줄을 모른다고 웃으며 말하였다.

이렇듯 맡은 일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고 거기에서 삶의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참된 인간을 집단이 어찌 값높이 내세우고 존경하지 않으랴.

지난 기간 객화차대에서 화차수리를 제기일에 보장하면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여러차례 받아안은 성과속에는 김선녀동무의 헌신의 자욱이 별처럼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김 진 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통신케블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에서— 본사기자 최 충 성 찍음

황금산, 보물산을 가꾸어가는 참된 애국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김정일애국주의가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투의 앞장에서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산림감독원들이 있다. 그들의 모습은 참된 애국은 조국의 재부를 늘여가는 실천투쟁속에 있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대들의 행복이 꽃펴날 래일을 위하여 투쟁하는데 인생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것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고향땅의 래일을 위해

희천시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양춘일동무

희천시내를 벗어나 강계쪽으로 도로를 따라 얼마간 가느라면 나날이 푸르러지는 청하동의 산발들이 눈앞에 안겨든다. 바로 거기에는 희천시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양춘일동무의 헌신이 깃들어있다.

10년전 희천시 청하동의 주민들은 새 산림감독원인 30대 초엽의 제대군관 양춘일동무를 말없이 맞이하였다. 그에게로 향해지는 믿음어린 눈빛, 걱정의 눈초리…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당시 청하동의 산들은 고난의 행군의 후과로 거의나 벗겨져있었다. 새 산림감독원에게 과연 저 산림을 복구할 어떤 방도가 있겠는가. …

자기에게 향해지는 눈빛들을 감촉하며 양춘일동무가 제일먼저 찾은것은 주민세대들이였다. 마을의 로인들과 마주앉아 나무심기와 관련한 토의도 하고 절절히 호소도 하는 그의 손에는 얼마간의 식량도 들려있었고 때로는 몸보신에 좋다는 약재들도 들려져있었다. 이렇게 주민들속에 들어가 마음의 문을 먼저 두드린 양춘일동무였다. 시련이 겹쌓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아버지를 잃은 그에게 있어서 마을의 년장자들은 산리용반성원들이기 전에 마음을 의지할 혈육이였고 혁명선배들이였다.

하지만 그 나날에 자기의 진정을 바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오늘도 산리용반성원들의 어느 가정에서나 마치도 친자식자랑을 하듯 양춘일동무에 대한 이야기가 울려나오고있다.

고향사람들을 무척 사랑하고 고향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자기 살점처럼 소중히 품어안는 사람이라고.

양춘일동무가 산리용반성원들과 함께 심은 수백정보의 잣나무림과 이깔나무림에 록음이 짙어가던 지난해 어느날 마을사람들이 그의 집터밭에 모여들었다.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모들이 파릇파릇 움터나는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주민들에게 그가 한 말은 또 얼마나 심금을 울리였던가.

《저 뒤산에는 잣나무, 밤나무숲이 우거지고 집집의 뜨락마다에 과일향기가 넘치면 우리 고장은 더욱 살기 좋아지고 그것은 곧 내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 나무모 한포기라도 병충해를 입을세라 양묘장과 산판에서 살다싶이 하며 애를 써온 그의 머리속에는 이렇듯 벌써 과일꽃속에 묻힌 고향마을의 래일이 설계되여있었던것이다.

지난 4월 희천시의 산발들에서는 새로 조직된 애림선전대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이 산림복구에 떨쳐나선 사람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었다. 여기에도 희천시의 모든 산들에 하루빨리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려는 그의 뜨거운 진정이 깃들어있었다.

지난 10년간 산림감독원으로 일하면서 750여정보의 산판에 푸른 숲을 가꾸어온 그의 공적도 자랑할만 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것은 나무 한그루를 심기에 앞서 조국을 위해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먼저 묻어온 그의 량심이며 사람들에게 당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헌신이 아니랴.

본사기자 신 현 규

숲이 설레이는 소리

운산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백철이동무

운산군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백철이동무의 가정은 쉽지 않은 교육자가정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운산군 방어리에서 근 40년동안 교편을 잡고있었으며 현재 운산군 온천고급중학교 교장으로 일하고있는 맏형도 수십년간 교단에 서있다. 그의 막내녀동생과 안해 한철순녀성도 교육자였다.

이런 교육자가정에서 사는 그가 어떻게 되여 산림감독원이 되였는가.

읍에서 한 시오리정도 걸으니 백철이동무가 관리하는 산림이 나졌다. 잣나무, 창성이깔나무들이 빼곡이 들어찬 숲속에서 백철이동무는 한그루 잣나무앞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그 나무는 25년전 백철이동무가 조국보위초소로 떠나던 날 심은것이라고 한다. 당시 방어고등중학교 교장이였던 그의 아버지는 졸업생들을 이끌고 학교앞산에 올랐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오늘 심은 이 나무들이 거목으로 자랄게다. 우리 고향의 숲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숲이란걸 잊지 말아라.》

그날 백철이동무는 동무들과 함께 양묘장에서 정히 떠온 애어린 잣나무를 수십그루나 심었다. 그후 백철이동무는 고향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잣나무에 대해 썼다. 몸은 비록 조국보위초소에 서있어도 한뽐, 두뽐자라는 잣나무를 백철이동무는 눈에 보듯 늘 안고 살았다.

군사복무의 나날 초소주변에 애솔 한포기 심을 때에도 제손으로 심은 고향의 잣나무를 생각했고 훈련길에서 자그마한 양묘장을 볼 때에도 고향의 푸른 숲을 그려보았다. 류달리 나무를 사랑하는 그를 두고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칭찬할 때면 그는 나의 고향은 조선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에 나오는 고장이라고, 나무가 많아 숲이 우거지고 언제나 새소리 유정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하군 했다.

이런 그여서 제대되는 날 부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은 그에게 많은 꽃씨와 나무모들을 구해주었다. 그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고장의 숲을 더 푸르게 가꿔달라는 전우들의 당부이기도 했다.

그가 맡은 산림은 릉선을 따라 걸으면 수십리나 되는데 그는 이 구간을 매일이다싶이 돌아본다고 한다.

지금 그가 꾸려놓은 양묘장에서는 수종이 좋은 애솔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있다. 그 애솔포기들은 지난해 평양건학을 갔다가 백철이동무가 애써 구해온것들이다.

이제 얼마후면 그 애솔들은 백철이동무가 가꾸는 산에 또다시 옮겨지게 된다.

근 1 000정보에 달하는 산림, 거기에는 한 평범한 인간의 애국의 마음이 어려있다.

본사기자 오 은 별

변함없이 이어가는 복무의 길

와우도구역산림경영소 산림감독원 김일창동무

지금으로부터 17년전 봄 어느날이였다. 령장자욱이 또렷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서해갑문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산등성이에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조선인민군 군관으로 복무하다가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온 김일창동무였다. 서해갑문건설에 참가했던 지난날의 벅찬 화폭들이 눈금을 쩌릿이 적시며 그의 기억속에서 되살아났다.

폭풍사나운 바다밑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힘겨운 전투를 벌리던 잠수공들속에 김일창동무도 있었다.

불현듯 그의 눈앞에 잡관목만 무성한 산들이 그때의 사나운 파도처럼 겹쳐들었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선 김일창동무는 조국이 준 새로운 임무수행길에 올랐다. 그는 이렇게 산림감독원이 되였다.

김일창동무에게 있어서 산림을 조성하는 일은 너무도 생소한것이였다. 온종일 산들을 돌며 지대별토양상태를 알아보고 밤에는 산림학과 관련한 도서들을 탐독하느라 어떻게 시간이 흐르는지 미처 의식할수 없었다. 그는 산림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며 자체의 양묘장을 꾸릴 때까지 다른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들을 구해다 심는 한편 자연생나무들을 더 잘 가꾸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어느날 산림보호와 관련한 주민정치사업을 진행하고 돌아서는 그를 여러명의 전쟁로병들이 멈춰세웠다.

《우리를 산림순시원으로 받아줄수 없겠소? 전우들의 피가 스며있는 조국산천을 가꾸는 일에 우리가 응당 앞장서야 할게 아니요.》

조국수호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던 화선병사의 모습으로 애국의 전투좌지를 지켜나선 전쟁로병들의 고결한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어졌다. 그는 산림순시원들과 함께 자연생나무들의 성장에 유리하게 잡관목들을 베여주며 산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어려해가 흘러 잡관목만 무성하던 산들이 점차 숲의 륜곽을 드러냈다.

산림조성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나왔던 와우도구역산림경영소의 일군은 몰라보게 변모된 산들을 바라보며 김일창동무에게 이런 의향을 내비쳤다.

《산림조성이 한심한 다른 지구를 맡아 지금처럼 일신시켜보지 않겠소?》

이제 얼마후이면 빛을 보게 될 창조물을 남에게 양보하고 떠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김일창동무는 미소를 지으며 흔연히 대답했다.

《제가 꼭 해낼수 있으리라고 믿으니 맡겨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한생을 군사복무시절처럼 알았습니다의 대답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며칠후 그는 다른 지구로 떠나갔다. 그는 양묘장을 꾸리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돌과 나무뿌리들을 뽑아내고 거름을 듬뿍 내여 땅을 기름지게 걸구었다. 이른봄이면 남먼저 질좋은 거름을 지고 양묘장으로 나가고 여름이면 산림순시원들과 함께 뙤약별속에서 김매기를 하고 그러다가도 산들을 오르내리며 심어야 할 나무종자와 면적을 가늠하기도 하느라 그의 잔등은 늘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한달이 멀다하게 신발을 새로 바꾸어신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게 애쓴 결과 산들에는 어느덧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규모있게 자리를 잡았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김일창동무는 또다시 새로운 지구로 자리를 옮기였다.

지난 기간 그가 조성한 산림은 천여정보에 달한다.

산림감독원제복을 군복처럼 여기고 조국의 재부를 마련하는 길을 정보로 걸어온 김일창동무, 그는 오늘도 군인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애국의 길을 힘차게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조 경 철

민족자주의 길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

지금 조국통일운동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을 짓부시며 민족자주의 기치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운동의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애국위업을 더욱 활력있게 추동해나가고 있다.

조국통일운동이 력사의 온갖 도전을 이겨내며 승리의 언덕을 향해 곧바로 전진해나갈수록 해내외의 온 겨레는 숭고한 애국의 리념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제시해주시고 조국통일운동이 민족자주의 궤도를 따라 나아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고귀한 밑천을 마련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켜내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실 확고한 결심을 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뜻과 유훈대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주체85(1996)년 11월 24일 짙은 안개를 헤치시고 판문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시였다.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통일애국의 세계가 비낀 친필글발을 보고 또 보시며 깊은 회억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을 제일 가슴아파하셨기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치시였다고, 우리는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실현하여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절절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만난을 무릅쓰고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해야 하며 그러자면 반드시 자주통일위업에 쌓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어버이수령님의 친필비앞에서 우리 장군님 신념으로 굳히신 불변의 의지였다.

주체89(2000)년초 백두산지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눈보라를 맞으시며 력사의 분수령에서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실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주체89(2000)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대에 들어선것만큼 이번에 내놓는 문건은 온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락관을 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한다는것을 천명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외세가 아니라 동족끼리 손을 맞잡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자주와 단합의 깊은 뜻과 조국통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가 함축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민족성원이라면 누구인들 공감하지 않을수 있으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것을 온 겨레와 세계앞에 확약하는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자주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6.15가 열어준 자주와 단합의 넓은 길을 따라 온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을 힘차게 다그치는 속에 주체96(2007)년 10월 력사적인 10.4선언이 채택되였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할것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다시금 확인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실천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10.4선언은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통일의 가장 빠른 지름길을 밝혀준 빛나는 대강이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자주의 기치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조국통일운동의 밝은 앞날을 펼치시고 통일위업실현의 튼튼한 토대를 쌓으신것은 력사와 민족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이다.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든대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여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는 강령적지침을 제시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자주통일의지와 애국의 뜻에 떠받들려 조국통일운동은 나날이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조국통일운동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출중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정세흐름을 주도하시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 계신다. 현 조미대화국면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우리의 무진막강한 국력,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마련된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은 승리와 영광의 길, 자주통일위업실현의 길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길에 평화와 통일이 있고 자신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이 있다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통일애국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최 진 향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여

수리아정당 성명 발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지지하여 수리아아랍사회부흥당 지역지도부가 4월 3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판문점수뇌상봉에서 이룩된 모든 합의들을 적극 지지환영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판문점선언은 조선반도의 통일과 번영을 실현하려는 조선민족의 공동의 념원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려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립장을 적극 지지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곧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진보적인민들의 승리로 된다.

우리는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건설을 위한 공동의 투쟁에서 조선로동당과의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다.

자체의 힘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

외국인들의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모습은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일본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 단장 다께다 신지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에 매여달렸지만 결코 조선의 전진을 멈출수 없었다.

조선은 자신의 힘을 믿고 오직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전진하여왔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나라이다.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더모트 하드슨은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은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제재압살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가 현실에 구현되여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과학기술적위력을 남김없이 시위하고있으며 수많은 건축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이것은 서방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것이다고 피력하였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단장 릴라 마니 포크렐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자기의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고 자강력이 있으면 승리자가 된다.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일심단결의 위력, 막강한 군력이 불패의 힘의 원천이라는것은 조선인민이 오랜 투쟁기간에 새긴 력사의 진리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횡포한 압살책동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오직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자체의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모든것을 창조해나가는 조선인민만이 이룩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다.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조선인민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죽어도 버리지 못할 대결악습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북부핵시험장의 폐기와 관련한 공보를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 각계와 국제사회는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그런데 유독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은 우리의 과감한 결단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대하면서 가시돋힌 악담질을 일삼고있다.

우리 외무성 공보가 발표되기 바쁘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역도를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그 무슨 《핵실험장폐기극》이니, 《기만》이니 하고 피대를 돋구면서 물 본 미친개마냥 지랄발광하였다. 한편 《진정성이 의심》된다느니, 《철저한 검증과 사찰이 필요》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고약한 나발을 불어대면서 우리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고있다. 이것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에 의해 마련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의 흐름을 가로막고 적대적분위기를 고취하려는 대결광신자들의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가 전환적국면을 맞이한 지금 그 어느때보다 동족대결에 악랄하게 매여달리면서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는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동족이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기를 들고 헐뜯지 못해 지랄발광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체질적악습은 갈데 없다. 온 겨레와 전세계가 환영해마지 않는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에 대해 《위장평화전시회》라고 헐뜯어대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앞길을 밝힌 4.27선언에 대해서는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발표문》이라고 시비질하며 그를 깎아내리지 못해 발악하는 반역무리가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다.

원래 이자들은 북남관계개선과 담을 쌓고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극악한 반통일역적들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특히 북남사이에 대화와 관계개선의 문이 열리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고조될때마다 그에 찬물을 끼얹으며 대결의 광풍을 사납게 일으키군 하였다.

돌이켜보면 력사적으로 북남관계에서는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대화와 협력의 좋은 계기들이 여러차례나 조성되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우리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72년 7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력사적인 7.4공동성명이 발표되였을 때 온 겨레는 얼마나 커다란 환희와 희망에 휩싸였던가. 그러나 당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한 반통일대결광들은 《한장의 종이장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다.》는 악담을 줴치면서 합의사항들을 란폭하게 뒤집어엎고 《두개조선》조작책동에 미쳐날뛰였다.

그 죄악의 바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남조선보수패당은 민족분렬사에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자 그것을 《용공리적문서》로 악랄하게 헐뜯으며 자주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해나섰다. 6.15공동선언에 이어 10.4선언이 채택된 후에는 저들이 선언을 《리행할 의무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으면서 북남관계를 삽시에 파국에 몰아넣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보수패거리들의 망동때문에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피타는 노력이 응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고 북남관계는 대립과 불신의 악순환속에 모진 진통을 겪었다. 곡절많은 북남관계사는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거세찬 대하가 아니라 분렬과 대결, 반통일의 오물속에서만 기생할수 있는 더러운 역적들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우리의 북부핵시험장폐기와 관련한 외무성 공보가 발표된것을 놓고 또다시 동족대결의 광풍을 사납게 일으키는것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부정하고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으려는 추악한 망동이다.

그러나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역적들이 아무리 발광하여도 대세의 흐름을 돌려세울수 없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로 향한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꺾을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지금 보수패거리들의 추태를 《동족이 어떤 일을 하든 위장극으로 보는 놀부심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란동》 등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민중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셔버릴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민심에 역행하고 민족을 반역하는 대결광신자들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은 정 철

남조선단체들

당국과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의 중지를 요구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침전쟁책동을 규탄하는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진보련대는 16일에 발표한 론평에서 당국과 미국이 벌려놓은 《2018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에 《F-22랩터》스텔스전투기와 《B-52》전략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의 각종 전투기들이 대규모로 투입되였다고 까밝혔다.

《정부》의 방임으로 전쟁세력과 반통일세력이 바라는 행위들이 계속되고있는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북이 남북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해온데 대해 《정부》가 《유감》이라는 립장을 밝힌것은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였다.

온 민족이 환영하는 평화와 화해, 통일의 흐름을 깨버리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론평은 《2018 맥스 썬더》련합공중전투훈련을 비롯한 전쟁책동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민주로총, 전국농민회총련맹 등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미국대사관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지고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판문점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련합공중전투훈련 《2018 맥스 썬더》를 강행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단체들은 최신스텔스전투기를 사상 최대규모로 동원하여 북을 폭격하는 훈련을 《방어적》이며 《년례적》이라고 하는 변명을 어떻게 믿겠는가고 하면서 남조선당국과 미국이 감행하고있는 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탄하였다.

청년민중당 성원들은 16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국방부앞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북침을 노린 련합공중훈련의 중지를 요구하여 초불집회를 진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는 18일 대전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된지 한달도 안되는 시기에 공중전투훈련과 같은 전쟁연습이 벌어지는것은 평화를 바라지 않는 랭전세력, 안보세력이 있기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모든 전쟁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인민봉기당시 군부의 기록을 재조사할것을 주장

남조선 《KBS》방송이 16일 광주인민봉기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시체들을 암매장한데 대해 기록한 문건을 폭로하면서 군부의 기록을 재조사할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전투교육사령부 부사령관이 군법회의에서 한 보고가 들어있는 문건에는 광주인민봉기진압에 동원되였던 어느 한 부대에 학살한 시민들의 시체를 암매장한 장소를 보고할것을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와 함께 지시를 받은 부대에서 시민들의 시체를 파묻은 장소를 보고한 내용도 밝혀져있었다.

방송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광주인민봉기당시 군부가 희생자들의 시체를 암매장한 사실을 알고있었고 수색결과까지 보고받은것이 드러난 이상 군부기록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미국의 인권기록 (4)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이 발표

5. 멸시와 인신침해를 받고있는 녀성들과 어린이들

미국녀성들은 취업과정과 일터에서 차별을 받고있으며 어린이들의 빈곤문제와 건강 및 신변안전문제 등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장애자들은 폭력을 당하고있으며 보편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성희롱과 성폭행문제도 거세찬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녀성들은 성희롱과 성폭행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있다.

2017년 10월 미국의 한 영화제작자가 여러명의 녀배우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추문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각계는 사회교제매체를 통해 《미 투》라는 사회적운동을 벌려 피해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에 존재하고있는 성희롱과 성폭행범죄에 항의하도록 고무해줌으로써 100만여명의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미국평등취업기회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녀성의 60%가 일터에서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한다.

영국의 BBC방송웨브싸이트는 2017년 11월 23일 이전 미국체조대표팀 의사 래리 나싸르가 자기가 치료하는 녀자선수들을 성폭행한것으로 하여 기소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은 130여명에 달하며 그중에는 여러명의 올림픽금메달수상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미국신문 《후핑톤 포스트》웨브싸이트는 2017년 12월 18일 미련방최고재판소 판사가 여러명의 이전 녀직원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것으로 하여 기소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방성이 2017년 5월에 발표한 년간보고서에는 2016년에 미군내에서 1만 4 900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고 밝혀져있다. 피해를 입은 녀성들은 이를 기소한 후 자기들의 개인비밀에 대한 담보를 받지 못하고있으며 세상에 알려질것이라는 공포속에서 생활하고있다.

취업과정과 일터에서 성차별이 심각하다.

미국로동통계국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미국의 소매업부문에서 도합 5만 4 3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남성과 녀성의 처지는 현저히 다르다, 녀성들의 일자리수는 16만개이상 줄어들었지만 남성들의 일자리수는 오히려 10만 6 000개 더 늘어났다고 밝혀져있다.

류연구쎈터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녀성의 57%가 남녀평등권보장측면에서 국가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녀성의 38%가 고용과 임금등의 측면에서 성차별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인신권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있다.

미련방수사국이 2017년 7월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미국에서 10살 및 그 이하의 어린이들을 겨냥한 인신피해사건은 6만 8 068건에 달하였고 11살부터 15살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인신피해사건은 9만 7 588건에 달하였으며 16살부터 20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감행된 인신피해사건은 15만 9 963건에 달하였다. 그중 성폭행사건은 도합 8만 3 611건이다.

미국녀성정책연구소웨브싸이트가 2017년 11월 28일 전한데 의하면 하와이에서 근 5분의 1에 달하는 고급중학교 녀학생들이 교정에서 학대를 받았으며 4분의 1이상의 녀학생들이 성희롱을 당하였다.

빈곤한 어린이들의 건강상태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콜럼비아특별구에 있는 한 공공주택거주자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조사를 받은 성인의 33%가 집에 천식을 앓는 자식을, 14%는 집에 만성질병을 앓는 아이를 두고있다고 밝혔다.

장애자들이 폭력을 당하고있다.

미사법성 사법통계국이 2017년 7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2015년기간에 12살이상의 장애자들이 폭력을 당한 비률은 적어도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2배에 달하였으며 2015년에는 그 비률이 2.5배이상에 달하였다. 엄중한 폭력범죄의 피해를 받은 장애자들의 비률은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의 3배이상에 달하였다.

6. 계속 감행되고있는 타국에 대한 란폭한 인권침해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행동으로 타국의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고있다.

판따나모기지감옥에서는 여전히 타국의 공민들을 비법적으로 감금하고 악형을 가하고있다. 미국은 또한 싸이버전쟁수단들을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들의 콤퓨터망에 제멋대로 침입하여 감시통제하고있다.

수리아에서의 군사행동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였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웨브싸이트가 2017년 6월 19일 전한데 의하면 미국정부는 이라크와 수리아에 있는 미군에 무력을 어떻게 얼마만큼 사용하겠는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해줌으로써 민간인사망자수의 끊임없는 증가를 초래하였다.

잡지 《마더 존스》웨브싸이트는 2017년 8월 6일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과 미해병대가 몇달동안에 수리아의 각지에서 적어도 12개의 학교와 15개의 이슬람교사원, 15개의 다리 그리고 여러곳의 민간시설, 의료기관, 문화유적, 피난민수용소를 폭격하였다, 련합군전투기들은 또한 전쟁의 재난을 피해 강을 건느는 사람들이 탄 배들을 공습함으로써 20여명의 민간인을 살해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한 정치분석가는 수리아에서 감행되고있는 미국의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판따나모기지감옥에서는 외국인들을 장기간 비법적으로 감금하고 악형을 가하고있다.

신문 《유에스에이 투데이》웨브싸이트가 2017년 12월 13일 전한데 의하면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는 미국이 판따나모에 《합법적인 검은 소굴》을 만들어놓고 혐의자들을 그곳에 무기한으로 감금하도록 허용하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심지어 재판을 받지 못한 많은 억류자들을 10년이상 감금해놓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싸이버전쟁무기를 만들고있다.

폭로전문웨브싸이트인 위킬릭스는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이미 파키스탄의 콤퓨터망들에 침입하여 이 나라의 수백개의 IP주소들을 감시하고있다고 밝혔다.

《제로 헤지》웨브싸이트는 2017년 5월 14일 미국가안전보장국이 치명적인 무기라고 불리우는 싸이버전쟁수단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무기는 누구든지 임의의 콤퓨터체계에 몰래 침입할수 있게 해준다고 전하였다. 해커조직은 이 수단을 랜썸웨어를 제작하는데 리용하였으며 세계적범위에서 20만대이상의 콤퓨터에 대한 싸이버공격을 감행하였다.

(끝)

심각한 대기오염문제

오늘 세계적범위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생명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인간생활에 혜택만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다. 지구온난화와 생태환경파괴라는 부정적영향도 주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의 독점재벌들은 리윤추구에만 눈이 어두워 생태환경파괴문제를 외면하고있다. 오늘날 대기오염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는것은 바로 이와 관련된다.

대기오염물질에는 폐와 심장혈관계통에까지 침투하는 미세알갱이가 포함되여있다. 이것은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과 같은 각종 질병들을 일으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있다. 대기오염이 콩팥질병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증명되였다.

얼마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으로 10명당 9명이 오염도가 높은 공기속에서 살고있으며 해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약 70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도이췰란드에서 최근년간에만도 대기오염으로 인한 심장혈관질병에 걸려 6 000명이 조기사망한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유엔은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4대사망요소중의 하나로 된다고 발표하였다. 환경오염에서 기본요인은 대기오염이다. 세계적으로 80%이상의 도시들에서 정상적인 공기정화수치가 보장되지 못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90%이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사람들이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지중해의 동부지역과 동남아시아지역이며 이 지역들에서의 년평균 대기오염지수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의 5배이상에 달한다.

대기오염은 보다 심각한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다.

일부 연구사들은 대기오염이 세계기후와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대기오염물질들이 구름형성과 강수량, 태풍의 세기 등 여러가지 기상요소들에 영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기후까지 변화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은 인류가 산업혁명이후시기부터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대량적으로 사용하며 경제활동을 벌린것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여있다. 화석연료가 화력발전소들과 각종 운수수단들, 가정들에서 각이한 용도로 리용되는 과정에 대기오염물질들이 대량방출되였던것이다. 세계산림면적이 급격히 줄어들고 도시지역들에 인구가 지나치게 밀집되는것과 같은 여러 요인들도 대기오염현상을 더욱 촉진시키고있다.

현실은 대기오염을 비롯한 생태환경파괴현상을 막는것이 더는 미룰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얼마전 아프리카의 사하라이남지역 나라들이 도시들에서 륜전기재들에 의한 온실가스방출량을 줄이는데 협력할데 대한 콤퓨터케를 발표하였다. 콤퓨터케는 연료의 효률을 높이면서 보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수 있는 륜전기재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륜전기재의 기술적발전을 다그치는 사업에 투자를 늘이는 등 새로운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10월에 모든 나라들이 대기오염을 막고 기후변화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첫 세계대기오염 및 건강회의를 주최하려 하고있다.

모든 나라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사업에 보다 큰 관심을 돌리고 그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벨지끄에서 대규모항의시위

벨지끄의 브류쎌에서 16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7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시내거리들을 따라 행진하면서 당국이 년로자들을 비롯한 사회적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처지를 보다 어렵게 하는 정책을 추구하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시위로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문을 닫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81080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